朝鮮日報 夕刊
本紙夕刊十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道知事會議와 警察部長會議

定例道知事會議는 四月十七日부터 開催하고 道警察部長會議는 同二十二日부터 三日間 開催키로決定하고 繼續하야同月末中樞院會議도開催할豫定이다

國府對日策全面的轉換?

領土保全、共軍討伐等 日本의援助要求?

蔣介石氏의自進會見要求는 滿洲事變爾後처음일

蔣介石氏

有吉公使

【電通南京二十八日發】蔣介石氏는過日歸京以來汪精衛、黃郛、孫科、王寵惠、居正、孔祥熙、宋子文等首腦部其他 政府當路의 要人을隨時參集식히고 對內外政策을論議하고잇는데 中國側某要人의 言明한바에依하면 蔣介石氏를中心으로한 巨頭會議에서 對日策을協議한結果 現下의中國으로서는 積極的親日策을取할수밖게업다는데 意見이一致되야中國政府로부터 誠意를適當한方法으로 日本에表明키로決定하엿다 고하는터로明二十九日의 鈴木中將과蔣介石氏 有吉公使와汪精衛氏와의 兩會見席上에서 이에關한表明이잇슬것으로 期待된다 그런데日本現官邊의意向으로서는 中國側의從來의態度로보아具體的事實에依한誠意의表示를要求함이適當하다고보고잇슴으로 二十九日의 重要한日中折衝에서는相當히具體的會談이行할것으로 期待되야境遇에依하여는覺書交換又는 共同聲明書의 發表가잇슬것으로보인다 (寫眞은汪精衛氏)

蔣介石氏·有吉公使 南京서今日重要會見

【東京電話聯合】有吉駐中公使는二十九日南京着 三十日蔣介石氏와會見키로되엿는데 蔣介石氏와의會見은 蔣氏의要求에依함으로去一月十五日蔣介石氏가 上海에歸來할時에 公使에게會見希望을通하야 南京에서會見하자는言을外交部次長 唐有壬氏를 通하여申請해왓다 蔣介石氏는또公使館附武官鈴木中將及 影佐武官과도會見을 求하엿스나 影佐武官은南中에 赴하엿슴으로 實現되게못되엿다 蔣介石氏가 有吉公使에會見을 申請한일은 事變以來稀有한일로서 이는廣田外相의議會演說其他에나타난 日本의親善外交策에鑑하야 蔣介石氏가從前과가튼頑强한 排日主義의非를깨닷고 日本의友好的方針에對應한것으로보인다 有吉公使及蔣、汪兩氏의會見에서 中國側으로부터 提議되리라고觀測되는問題는
一、中國의領土保全問題
一、銀問題
一、共產軍討伐援助問題
一、不平等條約에依한拘束除去問題
等이다 領土保全의問題는北中의事情에鑑하야南京政府가자못不安을품고잇는點으로 보아도 그保障을希望할것으로 豫想되다 銀問題로는 銀流出에依한 中國經濟狀態에對하야 日本의援助를求하는一方 共產軍의討伐에對하여도 日本의援助를求할것은 過般來中國側으로부터 屢屢히되든바이며 不平等條約廢棄는中國當局年來의 宿望이다 이에對하야 日本側은廣田外相의議會에서의外交方針演說에依하야 闡明된 日中提携의根本方針을說明하야그徹底的匡正을 要求하는一方 不平等條約問題에關하여는日本은中國이完全한 統治國이되야從來와가티 列國의中國國際管理의觀念을除去케하야不平等條約을廢棄하고그國際的地位를水平線에까지引上하는것을衷心으로歡迎하는 同時에援助도해가지안는터로要컨대中國이 獨立國으로서의 內容을充實히함이 急務로서無準備의不平等條約廢棄는 될수업는旨를 說明하야 日本의態度를 明確히 할것으로보인다 그리고滿洲國問題는日本은 이에言及치안코또中國側도이를 問題化할것은 이會見을破壞케할것을念慮하야 言及치 안할것으로보인다

壽府日本事務局 日中提携言明

中國의共產主義를撲滅하고 經濟發展을促進

【주네브二十八日發聯合】日中兩國政府는 廣田外相의外交를 基調로互相提携하려는 空氣를보이는것은 滿洲國不承認政策의 策源地聯盟事務局에 異常한衝擊을주고잇는데 주네브駐箚國際會議日本事務局에서는 二十八日外國新聞記者團에對하야 日中兩國提携의事實을確認하야 如左히言明하엿다
日中兩國政府는 只今中國의發展을期하야 平和協調를促進하야드되여 基礎的協定에 達하고저한다 右協定의目的은
一、中國와 共產主義를撲滅코저兩國政府는 提携할것
二、經濟發展을促進하야中國國民의購買力을 增進하고日本品의 販路를擴張하려는 것이나中國이 經濟的으로 發展되면 日本品뿐만아니라 西歐諸國에對한 需要도 自然增加될터로 西歐諸國에도 그恩澤이밋칠것이다

米國社會의斷面

黃金國米國도 經濟不況의波浪에는어절수가업서、失業者의飢鬼行進、게다가學生의스트라익까지 最近流行한다。 寫眞上은 紐育上의일홈닭나는 失業者行進、同中은紐育大學生의 校長排斥데모이니 人形은그校長을 擬한것、同下는校舍가납브다고、標語까지들고데모하는필라델피아小學生의盟休

貴族院本會議

人權蹂躪問題로· 岩田博士質問

司法官의 묫쇼的言動引用 法律的人道的으로追窮

【電通東京電話】二十九日의貴族院本會議는 午前十時十九分開會直時日程에들어가 國務大臣演說에對한質問을續行하야 津村重舍氏(研究)登壇 現下의政情을보매 時局이極히 困難하다 岡田內閣은참으로誠心誠意 擧國一致의實績을내여야만한다 岡田首相의意向如何
岡田首相 國論을統一하야 擧國一致의實績을내여 公正한政治를行하기를期하고잇다
津村氏再次製鐵合同問題 中小商工業者救濟問題에 關하야町田商相의所見을求하매
町田商相 產業의合理化 統制等에對한批評에對하여는다른機會에 말하겟다 蠶米統制法은制定當時는確實히適切한 法制라고생각하엿스나 只今에는利害相半하다고생각한다 中小商工業者의救濟는 農村과아울러行함이가장合理的으로서 그焦點은金融問題에잇다고생각한다
津村氏는 北鐵接收後의 赤化問題에關하야 廣田外相에게質問하매
廣田外相 北鐵讓渡成立後赤化宣傳이行하리라고는想像되지안는다
다음에岩田宙造氏(同和)登壇 前回의質問에서 人權蹂躪事實을指摘한데對하야 小原法相은 그事實을否認하엿는데余의企圖하는바는 要컨대將來에이가튼非法行爲를 防止하는點에잇다 本事件의 犯罪事實의有無에關하여는 公判前임으로 이는차치하고 今日豫審終結後釋放된被告에關하야 드르면如何히不法한取調가 行해젓는지는 歷然한事實이되엿다 小原法相은 遺言書를쓴이가잇는까닭에 自殺을防止코저가죽수갑을使用하엿다고말하나 가장마히 가죽수갑을使用한이가遺言書를쓴이가 아니고가장健康을 害한이가散步를請하다가 가죽수갑찬채로끌여당긴이도잇다 그리고重病에 걸려잇는被告를 豫審判事가午前七時부터午後十時까지繼續取調한事實이잇다 고그事實을述하야 이는 法律上問題뿐만아니라人道上容許할수업는問題이다 余는이事實에對하야 小原法相의答辯을·求하려고생각지안하나 諸君은 아마余의陳述한바가事實이라는것은認定할것이다 다시蒂理檢事의묫쇼的言動을引用하야 檢察官이이가튼 思想下에檢察事務에從事하는事實이잇서서는恒常 不安不信이잇을로서 저五一五事件에比較하야 一은暴力에依하고一은法律에依한 相違로서 何等實質的差異는업다고斷言한다음 現行制度에는 檢事가豫審判事에對하야 너머나廣範한權限을가지고잇는데에 蹂躪問題가惹起되는原因이潛在하여잇슴을 指摘하야 檢事의豫審判事에對한 優越的勢力에論하야 檢事의自白强要暴行不法取調等의形跡을업게하려면 이檢事의判事에對한 不當한勢力을업게하지안하면안된다그方法으로는
一、裁判所로부터 檢事局을分離식힐것
二、判事의人事行政을 大審院長에옴기여 司法大臣으로부터獨立식힐것
의二點에關하야 小原法相의所見을質問한다음 午後零時三十五分에散會하엿다

地方財政調整 交付金問題 波瀾은不免할듯

【電通東京電話】所謂爆彈動議의善後處置問題에關聯하야 政友會側은 일즉부터의主張인地方財政調整交付金制度의 實現을希望하야 二十八日의衆議院豫算總會에서도 大口喜六、太田正孝氏等으로부터 各各政府의所信을質問한데對하야 岡田首相은政府에서도研究考慮中이라는 暗示的回答을行하엿는데 政府의意向으로서는
一、地方財政調整交付金은 特히財政이窮乏된市町村에交付하는 主旨에는贊成이나 그러면財政狀態의良好한 市町村에對하여는 不公平한感을주어交付金에依賴하는 心理를일으킬念慮가잇다市町村의 自治體의精神에鑑하여도합브로 이를實施할수는업다
一、말하자면實施에當하여는 中央財政의再建을圖하야 現行中央地方行政制度의再吟味를行할것等의根本義를 考究할必要가잇다
이는內閣審議會에서 愼重히審議할性質의것이라는見解下에 이를追加豫算에計上함에는 反對하고잇다 一方政友會는窮乏市町村을救濟하려면 金額의多少를떠나그實施가急務라고主張하고잇고 民政黨及國民同盟側도 從來의態度에依하야 이에反對할수업는立場에잇슴으로今後政友會가 이問題를表面化식힐境遇에는 相當한波瀾은未免할것으로보인다

駐日中國武官 林陸相과重要會談

【東京電話聯合】駐日中國公使館附武官蕭少將은 不遠間歸國할터임으로 二十八日午後六時半林陸相을官邸에訪問하고日中間의諸問題에 對하야 軍部의意見을聽取하고 一時間半에亘하야 重要懇談을行하고 同八時에辭去하엿는데蔣介石氏가 有吉公使에會見을要求해온이지음으로이會見은 重要視되다

政府의態度如何로 爆彈動議態度決定

强硬自重兩派의抗爭白熱化

注目되는政友會二潮流

【電通東京電話】政友會內의 所謂爆彈動議善後處置問題를 潮流는 爆彈動議로 그色彩를表面에나타내고잇는데 自重派로指目되는床次系殘留及舊政友系의四十八名으로組織된 時局懇談會의 幹事十數名은 二十八日午後六時부터飛行館에參集하야 第一回의協議를行하야 自重的行動을議論하고 午後九時에散會하엿는데 一方强硬派로指目되는 鳩山系의二日會會員約二十名은 同日午後七時부터柳橋 柳光亭에參集하야對議會策에關하야 意見을交換하고同九時半에散會하엿다 兩派는모다秘密히 會合하야 五相擁晴中模索을 行하는狀態로서 豫算總會의審議의 白熱化에뚤아 이二潮流의 抗爭도 白熱化될것으로보인다

맥英首相의答辯 海軍會議를樂觀

條約廢棄問題도言及

【倫敦二十八日發聯合】맥도날드首相은 二十八日午後의 英下院의質問時間에際하야 議員의質問에應酬하야 海軍豫備會談本來의目的을 達成한것가티 言明한다음 情勢의推移如何에依하야英政府는 豫備會談을繼續할 用意가잇는旨를如左히言明하엿다
豫備會談의 目的은關係各國政府로하여곰 互相相對國의見解를諒解케하는一方 現存한諸困難을克服하기爲하야 若干의試案을檢討하는데잇섯다 今回의會議에依하야 右目的은完全히達成되엿는데 會議休會後는外交的機關을通하야同樣의商議過程을繼續하는터로會議를再開할만한情勢가進展됨에뚤아英政府는適時適宜의處置를取할것이다
다음에 맥首相은日本政府의華府海軍條約廢棄通告에言及하야 海軍擴張計劃遂行의 意圖를갓지안하엿다는日本政府의確言에 期待하야 華府條約은 世界大戰直後의 條約으로 爾來十數年間建艦競爭을 防止하야 國際感情의 惡化를 [illegible] 同條約의使命을 完全히 遂行하엿다 萬若一九三六年十二月의 華府條約期限滿了前에 海軍制限에 關한 新協定을 成을 보지못하야 將來의海軍兵力의 無制限競爭을 할수업게되면 英政府는 實로容易지안흔 重大事로볼것이다 그런데 日本政府는 華府條約廢棄後海軍擴張計劃을遂行하거나 又는國際平和를攪亂할意圖를 全然抱懷치안코 萬邦協和의達成을 强化키爲하야 至當公正한新協定達成을期한다는旨를言明하야 그主旨를英政府에通達하여왓다 英政府는多大한滿足을가지고 確言을믿는터이다 (寫眞은맥도날드英首相)

日中政治協定의所信斷行을決意

關東軍側의態度決定

【電通新京二十八日發】關東軍의 企圖하는 日中政治協定에 依한 通郵通車接續其他의 解決을圖한後나시이를 擴大하야 政治經濟的提携에까지 漸進코저하는것인데 中國側으로서 誠意로써日本要求를 듯지안는때는 關東軍은 大連會議의 方針에基하야 蔣介石政權을 信任치안코 東洋平和樹立을 爲하야 所信을斷行할決意를가지고잇다

滿洲地名問題 圓滿解決

北平武官室發表

【北平二十八日發聯合】滿中通郵問題協定實施後 中國側이滿洲國의 地名記載를認定치안함으로因하야 實施에非常한支障을 일으키고잇든바 北平駐在武官과中國側과의 交涉結果最近에 諒解가成立되야 北平의公使館附武官室은 二十八日如左히 發表하엿다
日中郵通實施에際하야 日中雙方間에 郵便地名에關하야 一時通郵에支障이잇섯든바 幸히圓滿히 解決되야 來二十八日以後에 보낼는郵便物은 封皮住所如何에不拘코 受附遞送키로되엿다 그리고 滿洲國方面으로부터 日本에 逐來되는 郵便物中 關東州及 滿鐵附屬地에서 日本政府의切手를 貼附한것及滿洲國에서 不得已한事情으로 滿洲國切手를貼附한것에 對하여도不足稅를 徵收하는일은업다

日中兩國間의 親善策確立

【南京二十九日發聯合】有吉公使는掘內、有野兩書記官、橫野書記生을帶同하고 二十九日午前七時에南京에到着하엿다 이와互相前後하야 立法院長 孫科氏及財政部長 孔祥熙氏는 二十八日夜에上海로부터 또駐蘇大使 顏惠慶氏도天津으로부터 모다南京에到着하엿는데 蔣介石、汪精衛氏兩巨頭를中心으로 鈴木中將、有吉公使와의間에 드듸여日中兩國百年의親善策이 確立될듯이보인다

比率變更은不可!

米國務次官필립스氏公式言明

軍縮方針은休會前同樣

【電通華府二十八日發】米國務次官필립스氏는 二十八日當地에서米軍縮方針은 現比率을 基礎로한 一般的軍備縮少에 잇는旨를如左히論說하엿는데 데비스軍縮代表의 歸國後國務省 當局者가이가튼 公式言明을한것은 最初의일로서 注目을끈다
安全感의 平等은均衡된 海軍力의總和에 基礎를 두어야한다萬若이三者間의 均衡이攪亂된다면 全組織이 危殆케되지안할수업다 米國의 軍縮方針은 均衡을 破壞치안코 軍備를 縮少할 唯一의法則으로서現比率을 變更함이업시 各國條約에依하야 規定된 軍備를低下하는데잇다 華盛頓政府는成功할可望이잇는때는 언제든지이基礎에서서 다시討議를進行할用意가잇다 그리고門戶開放主義는 極東에서뿐만아니라全世界에適用할것임을 이機會에다시밝혀두고저한다
【華盛頓二十七日發】倫敦軍縮豫備會談으로부터 歸國한데비스代表는 以來豫備會談의經緯를詳細報告하야 國務當局과 今後의軍縮根本對策에關하야 愼重히協議를進行中이엿는데 最近國務當局으로부터 確報한바에依하면 米國은 軍縮問題에關하야 休會以前의根本方針을堅持하기로 決定하엿다고한다
一、各國軍備의全般的縮少를圖할 一、但이때문에 從來의比率에何等變更함이업시從來의比率維持下에 各國이比例的으로軍備를縮少함

뉴-욕에 罷業

運轉手埠頭人夫

【電通紐育二十八日發】紐育港의 運轉手及埠頭人夫는 資本家側의解雇、勞働條件低下及勞働時間延長에抗議코저今日부터組合幹部의指令으로 罷業을開始하엿다 從來參加人員은兩組合總數六萬五千名中 三萬五千名인데 萬若罷業이 擴大되면 다른港灣勞働者에도 波及되게되야 北太平洋岸沿海의 港灣은 停止되야 昨年의大罷業再演出이잇슬지도알수업슴으로 그推移는 注目된다

英大使크라이브氏 重光次官訪問

【電通東京電話】駐日英國大使크라이브氏는 二十八日午前十一時外務省에重光次官을 訪問하고 宋哲元軍排擊事件及滿洲國軍과外蒙古軍과의 衝突事件에關하야 그眞相을質問하는 一方議會에서의 廣田外相의演說에關하야 意見을交換하엿는데 重光次官은 宋哲元軍의 [illegible] 西北中國分離計劃에 關하여는 [illegible] 宋哲元軍은 國境으로 부터 이미 [illegible] 問題는解決되야 [illegible] 外蒙古軍과의衝突事件은 이미 [illegible] 廣田外相의外交方針을 說明하엿다

北鐵交涉成立을 否定할根據업다

米國의東中鐵道交換文書公開와 外務省當局如此觀測

【東京電話聯合】米國務省은二十六日東中鐵道에關한 日米交換公文書를公開하야 各方面에센세이슌을주고잇는데 이에關하야外務當局은如左히말하고잇다
米政府가二十六日公表하엿다고 하는것은一昨年八月에發表方法에關하야日本에意見을照會하여왓슴으로어떤部分을除하고公表하여도 關係업다고回答하엿다 이公表와北鐵交涉과의關係는 이公表와北鐵交涉과는 [illegible] 時 米國도參與하야採擇한東中鐵道에關한 決議案에 依하거나 又는右決議案提出時의 米國의 提案에도 東中鐵道의所有權은 蘇聯에잇다하야 東中鐵道는 蘇聯의財產인것을認定하고잇슴으로보아 北鐵交涉의成立에關하야米官邊이이를否定할理由는업고또事實이가튼 일은업스리라고밋는다 新聞의報道에依하면 今番에發表된文書는 主로一九一九年當時의東中鐵道管理委員長 스테븐스氏와駐日大使모리스氏와의 報告인듯한데 萬若그러타면이가치日本과關係업는 文書의發表는米政府의自由이다 外務省으로서는 公電을기다리어 文書의種類內容如何에依하야 適當한處置를取할터이다

外蒙古軍과 再次不衝突

滿國은地方問題로折衝

【電通東京電話】在滿洲國南大使로부터 二十八日外務省에到達한 滿洲國과 外蒙古國境哈爾哈地方에서의 滿洲國軍과外蒙古軍과의衝突은其後再發치안하야 滿洲國의應援部隊가 現場에到着後라도 [illegible]
一、官憲은旅長을通하야 外蒙古에對하야 將來이가튼事態를繼發치안토록保障을 要求할것
一、哈爾哈地方은 滿洲國領土인것을確認식힐것
一、現地軍隊는越境치안할것

清水前圖書課長

來月四日出發赴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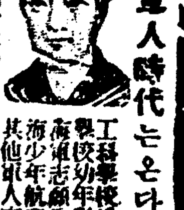
清水前圖書課長은 一月三十一日午後三時京城出發赴任豫定이든바 三日에歸京할 池田警務局長과 京城에서打合할用務가잇서서 出發을延期하야 三十一日부터三日間溫泉에서靜養한後 二月四日午後三時出發赴任하기로變更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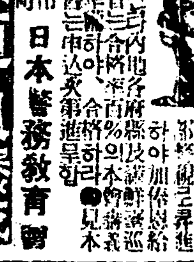
人事·集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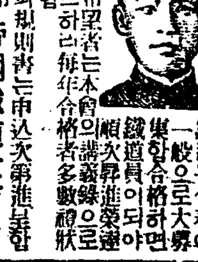
▲池田警務局長 渡東中二日頃歸任豫定이든바三日午後三時二十分京城驛着歸任豫定
▲淸水重夫氏(前圖書課長)東京警察官講習所教授로轉任人事次二十九日來社
▲朴興植氏(和信社長)火災慰問回謝次二十九日來社
▲柳生繁雄氏(圖書課長)二月一日午後七時二十五分京城驛着赴任豫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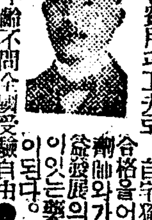
八面鋒

蔣介石氏와 鈴木中將 有吉公使의會見은 日中關係의 好轉을豫期케되리라고。
◇
事實이라하면 雙方을爲하야무엇보다 多幸한일、글字대로善隣의交를맷질수잇슬가。
◇
「데마·완도主義의 米國이 制綱을目標로 四千二百臺의飛機를準備코자。
◇
秋七月川野에雲集하는 鰐蛤群처럼、三五年太平洋은 飛行機로 덥힌말가。
◇
間島省長蔡運升氏、方今入京하야 官民間에 會合이자즌모양。
◇
省長이어、間島를 정말認識하라、住民의入側이朝鮮人임을 記憶하라。

陸海軍志願 少年航空兵 只今은軍人時代는온다

東京市牛込台町 日本軍事教育會

巡查受驗講義 官吏가되라

東京市牛込台町 日本警務教育會

鐵道員養成講義 鐵道員이되는第一捷徑

東京市牛込台町 帝國鐵道教育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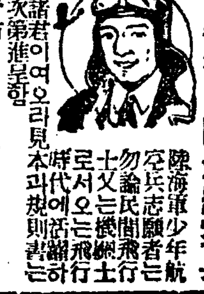
藥種商受驗講義 堂堂히開業되는職業

東京市牛込台町 藥種商受驗講習會

手紙習字講義 惡文惡筆은一生의大損

東京市牛込台町 手紙習字講習會

遞信受驗講義 郵便電信局員되는捷徑

東京市牛込台町 日本遞信教育會

飛行家養成 民間飛行家陸海航空兵

東京市牛込台町 日本飛行教育會

自動車運轉講義 나도되고십흔運轉手

東京市牛込台町 日本自動車教育會

思想善導를加味한 "官制體育"의强化策

民間體育統制에도注力할터

明年부터實施豫定

학무국에서는학생의체육(體育)장려와 일반의스포-츠장려 문제를 강화하기위하야 조선체육협회의 의개조와 기본재산의확충을 도모하는일방 체육행정의확립을 도모하고저 현재의사회과 체육계를확충하거나 또는예산을어드면 체육과를독립식힐계획을세우고방금조사중이라한다

일반학생의보건(保健)에대하야는 총독부와각도에 위생관(衛生官)을 설치할계획을 하고잇다는데 일반체육행정에 대하야는 『스포-츠』 통제의 강화와 『스포-츠』의 지도를위하야는 현재와가티빈약한경비와 소수의 계원으로서는충분한 지도감독이 곤난함으로 전긔와가치 체육과의 독립을계획하는것 이라는바 예산의관계로 금년에는 실현이 곤난하나 명년에는 긔어히 실현하리라고한다 현재의축구 정구등의 통제에 대하야는민간 체육단체의반대도 치렬한데 체육과의 독립이 실현되면 스포-츠장려가 일정상사상선도상의미에 확대되는 동시에 『스포-츠』의통제는매우강화될것으로 주목된다

朝鐵과報恩車 自動車業競爭

【淸州】 충북중부북부선(中部北部線)을점령하고잇는 조철(朝鐵)자동차와 충북남부선(南部線)을 점령하고잇는 보은(報恩)자동차와의량방에서는 최근 백열적경쟁을 로골화하고잇다 그표면화한것만들어도 다음과갓다 즉조철측은영업소가 의전에잇슴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바로보은차영업소의직전인 청주본정일정목에다 영업소를내다 약마원의경비로 최신식건축으로 본정싸비스스테이슌을 이십오일에 개업을하얏고 일방보은차측에서는 조직체를 개인단독소유이던것을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일방비로조철차의본정영업소엽헤다가 만여원이상의경비로 최신식이층양옥을 건축할터이라하며 그이층우에는 식당까지 경영하게하야충북운수계의 일대충동을 주리라하는데 운임기타 전술에잇서서도 크게사회의이목을 끌고잇다는데 어재던운임이 저렴하야질것과 새차구입등으로 경쟁이 백열할것은사실이라한다

楊口에一戶全燒

【楊口】 강원도 양구읍하리(楊口邑下里)에거주하는변유갑(邊有甲)의집변소에서 지난이십팔일오전두시반경에 돌연히 불이이러나 연해잇는 림동운(林東云)집까지 두채가전소하고 소방조의 극력방화로인하야 다행히 이웃집들은무사하얏는데 원인은 실화인듯하며 손해는 약백여원가량되리라 한다

普專校事業에 趙東熙女史美擧

근검저축하여든돈을 一千圓이나自進寄付

시외안암리(安岩里)보성전문학교(普專)는 삼십주년 기념사업으로 삼십만원의 기부금을 모집하는중 벌서 이십오만원가까이 모집되엿는데 이제도군제구마경(金燦郁萬)에사는 조동희(趙東熙)(六?)녀사는 일천원의기부를 신청하야왓다 동녀사는과거부인으로써 생활비를 절약하야모앗든것을 이처럼기부 하엿다하야 일반의 칭송이자자하다 금번기부자 중에는 부인의몸으로거액의기부를한이가 만흠으로특이한현상이다 (사진은조녀사)

英陽山間의 火田民極窮

도토리까지大凶作

【英陽】 경북영양지방은고원인관계로 다른지방에서 몰이다소만하서곤란으로여야 이양도 문제업시잘하는곳인데 금번은 다행히비가만허서 이앙시기에는 다른곳보다먼저완전히 식부를하엿슴으로대량풍년을예상하엿든것이불행히도수재로인하야 나락뿐아니라 보리와조까지확할이상감수로겨울을지날형도가 아니되는데 화전민의유일한량식으로생각하는도토리조차 흉작이되야 치우가더하여가는세모를당하야 다른사람과 갓치자녀에게 새옷과쌀밥을 먹이기는고사하고 도토리죽도 난감이라고한다

映畵로朝鮮產業

철도국에서는 오는이월 이십일일부터 사흘동안 동경에서열리는조선만주 려행안내사무협의회(滿洲旅行案內事務協議會)에 미리부터 출품보낸서과와 협력하야조선산업에대한 활동사진으로 접은 『조선위원』이라는것을만들어가지고거서각지에소개하리라한다

土地、農牛를放賣 千數百家族離鄕

농작물은오할이나감수가되여

城津地方農村의窮狀

【城津】 심각한흉작으로인한군내궁민의생활 상태를 군과경찰서에서조사한바에 의하면 현재기아선상을방황하고 잇는궁민이 군내총인구의 약구분지일여명에달한다고한다 그들은굶고 먹을것과 입을것이 업서진흙갈고 토지를 팔며 소를팔아 당면의 먹을것을구하려고한다는데 그중에는 직업을 차자정든 고향을 떠난자만해도 천오백여명에달한다고한다이제성진세관지서에나타난 작년십이월중의 농가중요품의무역중계통계를보면성진지방의특산품인 대두는 작년에비하야약오할이나 감수되엿슴에 불구하고이출에이서서 대두가사할 생우가사할이 각각증가되엿고 수입에이서서 만주속이오할 맥분이식할이 각각증가되엿는데 이것은 농가에서 장래를생각할 여지도업시눈섭에 떠러지는환을 면키위하야무어이던지잇는대로마팔어서만주속과맥분을박구어호구하여가는현상인데이것은소와잡곡류농가에서 작년미증유의 흉작으로인하야 급변한생활현상이고중류이하세궁민은 팔것도업고입할곳도업스니 그들은엇절수업시 초근목피로 연명하다가 이엄동에는 그것조차엇기 어려워서 지금은 속조(粟草)를제분하야 먹고사는자가 만타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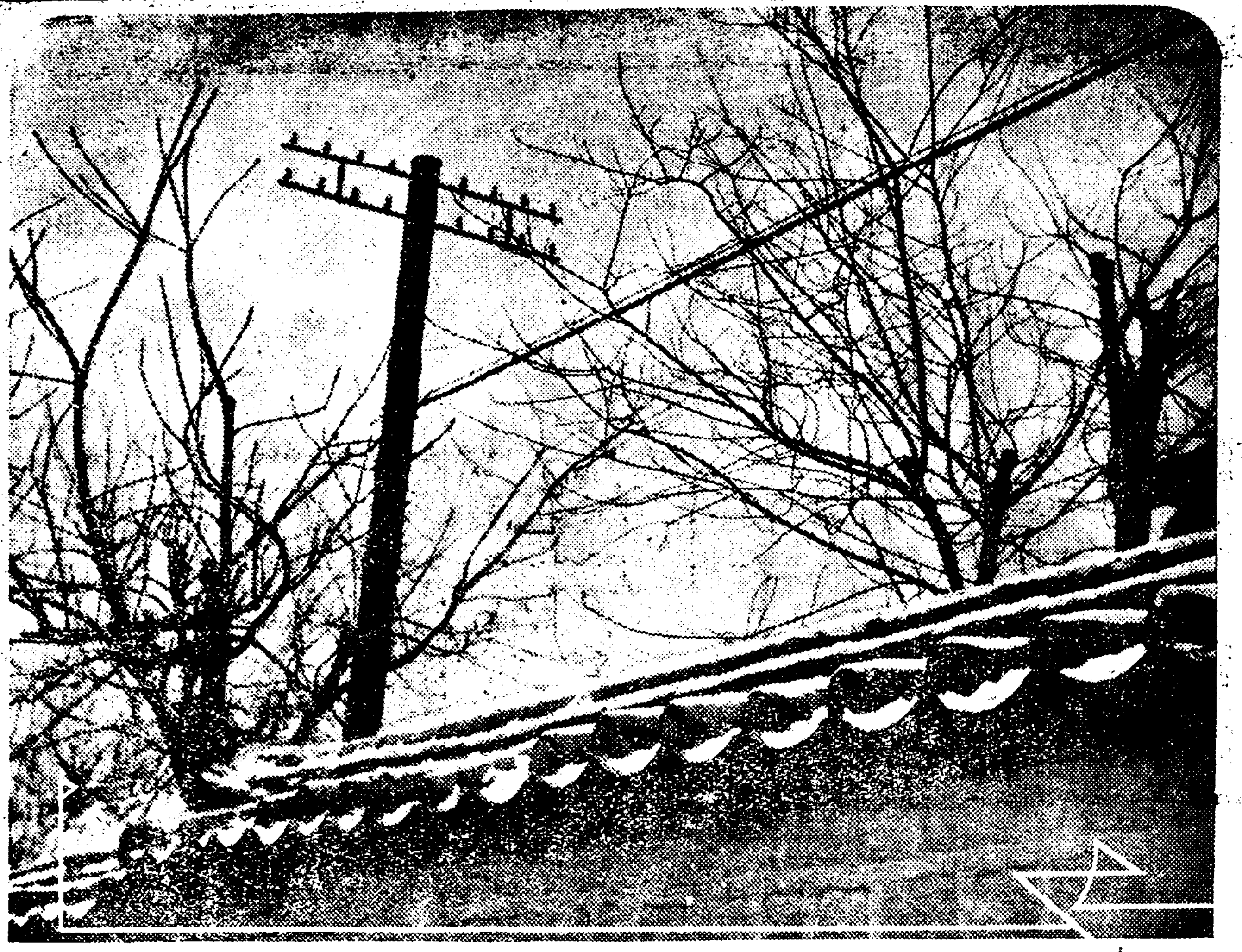
長湍의火災

【長湍】 경긔도장단군군내면읍내리 (長湍郡郡內面邑內里) 김용원(가명)의 집에서 지난이십칠일 오후네시반 경에 연울고타가 돌연히발화하엿는데 당지소방조의 민활한출동으로 동오시경에 진화하얏다는바 손해는 삼백원가량이라한다

貧民七十戶에 白米分給

市外安岩里 金炳學氏美擧

시외안암리(安岩里)팔십이번지김병학(金炳學)(三?)씨는례년에도구력정초에 그동리빈민에게 백미로써구제를 하얏거니와 이번에또리근칠십호의궁민계급에게매호백미두말과현금약간과 북어까지 보내여구제하얏다 구제맛은이들은 물론리근에서는 청년자선가 김병학씨의가상한일에칭송이자자하다



◇……[illegible]……금조촬영……◇

金正淵君快記錄으로 올림픽代表選手權獲得

今日、日光氷上올림픽最終豫選

李聖德君도出征키로決定

◇寫眞은 世界올림픽에 出場할 金正淵(上) 李聖德(下)兩君

【日光에서東京支局長 金東進發電】 세계빙상제패에로용약매진하야끄칠줄을모르는빙상조선의폭탄남아들의최후의대표권을결정하는『올림픽』전형경기대회는이윽고금이십구일오전열시부터일광세미(日光細尾)링크에서열리엇다

이날은 바람조차업고 기온령하사도로서 절호의『콘디순』이엇다 지난이십이일과 이십삼일에 열린 제일차예선회에서 설발되엿사명선수와 밋련맹에서 추천출상케한 여섯명을가하야 전부이십명이출장할터이엿스나 그중조선선수최용진(崔龍振)군은 신병으로 인하야부득이기권하고 또리인원(李仁源)군도 학교 사정으로 인하야 기권하고 귀향하엿슴으로 조선선수는 전부다섯명이출전하엿다 경기는 오백메돌『타임레-스』를 비롯하야개시되엿는데오백메돌에는 우리선수 리성덕(李聖德)군이 출전하엿스나 리군은 일천오백메돌에전력을다할 결심으로 연습겸할주하야 사십륙초일로 전일의긔록에미급하엿고그밧게조선선수들은 오백미에는 전부기권하엿는데 적은다음과갓다

五百米(타임레-스)

▲1石原(早大)四四秒八(日本新記錄)
▲2中村(北海道)四五秒五
▲3三代(滿洲)四五秒七
▲4河村(滿洲)四五秒八
▲5李聖德(朝鮮)四六秒一
▲6木谷德雄(滿洲)四六秒六
▲7南洞(滿洲)四六秒八
▲8泉山(東北)四六秒八
▲9聞間弟(諏訪)四七秒七
▲10聞間兄(諏訪)四八秒五

그리고 오천메돌경긔는 동열시부터개시되엿는데 조선선수는 김정연(金正淵)、장우식(張祐植)、윤명수(尹明洙)삼군이 출전하야 김정연군은 팔분오십초륙(八分五〇秒六)으로 단연우승하얏다 이로서 김군은완전히 올림픽대표권을 획득하고야마럿다 이기록은 전일에작성한 팔분사십구초구(八分四九秒九)보다 저윽히늣다 그리고 윤명수(尹明洙)군은 심신의 쇠약을무릅쓰고 출전하야 최후까지분전력주한결과 전일에 윤군이작성한기록보다 이십사초록을단축시켜 구분십구초팔의 호기록을작성하야 오등을하엿고 장우식(張祐植)군도 구초나단축하여사등이되엿다 오천메돌경과는다음과갓다

五千米(타임레-스)

▲1金正淵(朝鮮)八分五〇秒六
▲2小池(諏訪)九分一三秒一
▲3安達(滿洲)九分一六秒二
▲4張祐植(朝鮮)九分一六秒五
▲5尹明洙(朝鮮)九分一九秒八
▲6安東熙(朝鮮)九分二四秒一
▲7竹田(日光)九分三三秒
▲8木谷淸(滿洲)九分五二秒三

千五百米成績

【鐵道細尾電話】◇千五百米(正午開始、出場選手九名)

1南洞邦夫(滿洲)二分二一秒三
2李聖德(早大)二分二二秒五
3河村泰男(滿洲)二分二三秒一
(同上)
4淵間正見(中部)二分二四秒[illegible]
5代正勝(滿洲)二分二[illegible]
(獨走)
6石原省三(早大)二分三[illegible]秒二
7木谷德雄(滿洲)二分三五秒八
8泉山貞義(東北)二分三六秒七
9中村禮吉(北海道)二分三六秒三

명춘 이월에 독일(獨逸)『가르밋쉬·파르텐키르헨』에서 열리는 제사회 세계동기 올림픽빙상대표로는 우리의 김정연(金正淵)、리성덕(李聖德)량군과 석원(石原)하촌(河村)등 사명은 확정되엿스나 그밧게 일이명의 자비출전선수가 추가될터이다

鍾路의"和信" 二月八日開店

前鍾路署자리를利用

二個月後東館全部改修

대화재로인하야 건물대부분과상품 전부를소실한화신(和信)백화점 에서는 급속히복흥작업에 착수하엿다 그리하야 제일착으로전종로경찰서자리의 건물과동관 아래칭을리용하야 이월팔일부터 일부개점을 할터이요 압흐로이개월이면동관의 수리가 완료될터이니그때에가서는 팔구분의부흥을 볼터이라한다그밧게서대문련쇄점도리용하야 종전과가튼 통상통신의거래를계속할터이며 이번사건을 기회로련래의 대건물계획을 하로밥비실현할것이요 또그동안 진행중이든련쇄점 계획도지장이 업시진행식힐터이라한다

朝鮮詩壇看板지고 處女를誘引暴行

폭행하고는매음까지식히어

今日黃錫禹强姦罪로送局

잡지조선시단(朝鮮詩壇)의주간인 황석우(黃錫禹)(四?)는 가보와가치 그동안종로경찰서 고등계에서 류치하고취조중이드니 이십구일아츰에드디여강간(强姦)영리유괴(營利誘拐)등의죄명으로일건서류와함께 검사국으로넘기엇다 경찰의취조내용에의하면그의범죄는 그의안해 윤덕상(尹德相)의 조력을 바더가지고 지난 초겨울에 군산(群山)사는 오십마장자 김모의장녀로일찍이 동경(東京)암좌(岩佐)고등녀학교를 졸업하고당시 군산!군유치원보모로 잇든 김평안(金平安)(假名)(二?)을 음악가로 출세시켜준다고하고 꼬여서 상경시킨후 시외절간의 밀실에서 면도칼로서 위협하고 또그밧게도 가진 악랄한수단을써가면서 여러번수욕을 만족시켯다고한다 그러고는 다시그의 어떤친고에게까지 매음행위를 강제하야 사십원을바더먹엇고 그우에 지난십이월상순에는 그녀자를 다시대판(大阪)산다는 김현광(金顯光)(三?)에게 사십원을밧고 팔어서만주로 가게된것을 녀자가겨우그독아를 버서나서 경찰에구원을 청하야 필경잡힌것이라한다 『미의시인』의 가면아래숨은 그색마의 면모가그만 백일아래폭로된것이라한다

一枚에 二大傑作 流行歌 先驅

먼동이터온다 (四〇五九二)

순풍에돗달고

콜럼비아레코-드

二高、開城商業 學級增設

新年度부터

경기도학무과(學務課)에서는그변래로 관하의 관공립중등학교의확급증설의 필요를 늣기고 립안중이엿스나 예산관계로 천연되기여오든터인데 산변도에는 위선제이고보(第二高普)와 개성상업(開城商業)에 각각한학급식증설할계획을 세우고 그예산으로서 경상비로 륙천원을 계상하엿스나 아직 사정은되지아니 하엿스나 실현할 가능성이 농후할것으로 예기되고잇다

平壤府內의火災 二棟四戶를全燒

【平壤】 이십팔일오전두시삼십분평양부내 수옥리(水玉里) 사십팔번지에서 출화되야 련접한김종옥(金鍾玉)박덕순(朴德順)김용준(金鏞俊)송수길(宋壽吉)의 비상점이동사호를 전소하고 진화되엿다 손해는오천여원인바 점원들이 밤중에는 잇지안는상점들인만큼 원인을 알수업다한다 화명은 어떠한자가 지르럿는지 알수업다하야 평양경찰서에서는 도내각경찰서로 지급통지하야 범인을 수사하는중이나 이십구일 정오까지에도 하등그종적을 알수업섯다한다

上海서檢擧한 李奎彩送局

경긔도경찰부에서는 지난 이십칠일에 상해(上海)에서 ○○운동을 하다가 최근에이르러서는 공산운동을하든 리규채(李奎彩)(三?)라는 사람을검거압송하야다가 하루밤취조를마치고 이튿날 치안유지법위반으로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송치하얏는데 그는 지금으로부터 십삼년전에 상해에건너가 조선○○운동과 공산운동을 하든터이엿다하며 그의시골집인 포천(抱川)에는 딸심이넘은 편모(偏母)와 이남일녀가 잇다한다 시내송죽원(松竹園)에는그의게씨인리규서(李奎瑞)가잇는데 그는조연히 다음과가티말하얏다 집에서는 전연물랏더니 일전에경찰부 에서긔별을하야서 아랏슴니다 내용이무엇인지 은근히 걱정이됨니다 운운

一萬四千名에 醫師는單一名

伊川醫療狀況

【伊川】 강원도이천군은현재인구가 칠만이천여명에 달하는데의료긔관으로는공의(公醫)사명개업의한명으로 인구와의사의 비례를보면 의사한명이 일만사천사백명의군민의 위생보건을 당임케되는바 이천경찰서에서는 의료긔관의 확충에 노력한결과 군내서면(西面) 룡포면(龍浦面)판교면(板橋面)외 각면에 의생을배치하야 군민보건에 노력중이라고한다

流線型을타고 列車뽀이가密輸

【大連二十八日發聯合】 만철(滿鐵)이동양제일을자랑하는 류선형(流線型)긔차 아세아호는대련떠난후거의논스톱(不假止)임을 긔화삼아 렬차식당뽀이들이 대규모의밀수를 하려든것에 비취어 종래식당차의 감독은 전무차장권한외로 두엇든것을 이번에개정하야 이월일일부터 식당차도전무차장의 권한에두고감독케 하리라한다

開城에覆面强盜 兩名食刀들고侵入

백수십원을강탈해가지고도주

緊張된舊歷歲暮市井

구력년말도 몃출안남은 작이십팔일밤 개성(開城)에 흉기가진복면강도가 나타낫다 바로밤여덜시삼십분에 개성부 원정(元町)이백이십륙번지 김준호(金準鎬)(三?)의집에 조선식도를 가진복면강도두명이 침입하야 한명은방안에 한명은문밧게서지키고 한명은 『소리를 내면 죽인다』고위협하고 그의족끼에 너허둔일백십원가량 드러잇는 지갑과 크롬회중시계한개를 강탈하고서 다시그방에가티 잇든 룡득선(龍得璇)(二?)이라는 노인에게덤벼드러그가가젓든 일원십오전이드러잇는 돈주머니를 강탈하여가지고 어데로인지 도주해버렷다한다 그방안에드러가서 직접물건을 강탈해간범인은 키가오척이촌가량 되어보이며 갈색목도리를둘르고 검은두루마기를 입엇스며 낫은 검은수건으로 전부 가리웟섯다한다 그러고다른

年齡如何不顧하고 學生엔一切禁酒

政友會에서議會에法案提出

學生界와酒店에一大恐慌

유한학생(有閑學生)내지 불량학생(不良學生)의 『딴스홀』『카페-』『빠-』의 왕래가빈번하야 이문제가 이제와서는 훌륭한사회문제가되야잇는요지음에 이르러학생도의 금주법안(學生生徒禁酒法案)이란 것이 이번의회(議會)에 제출되리라고전한다

동경정우회 (政友會) 의 환산랑미(丸山浪彌)、산본신성(山本愼平)등 여러대의사가 정무조사회 (政務調査會) 에서 이안을 심의한 다음 이번에제안키로하얏다는데 내용인즉 년령의제한을떠나학생이면전반적으로 구속하자는것으로제일조에 『학생、생도는주류의 음용을금지한다』 주류를 판매커나또는 공여(供與)하는영업자가 학생이 먹는것임을알면서 준자는 과료에 처하도록하자는것으로 그것이의회를통과할런지는 의문이나 학생계와술장사간에는 큰충동을주고잇다

仁川赤色事件 鄭甲溶等求刑

三名에모다體刑을

소화칠년 일월부터 소화팔년사월인천에서『공장뉴스』를 발하여각지공장에 배부하야 동지획득까지에활동하고 상해에서 중대사명을띄고들어와잇든김형선(金炯善)과련락하야 조선공산당재건에 로력하며기타 제국주의반대의『삐라』를작성하야 공장로동자들에게 반포하는등으로 공산주의운동에 만히활동하엿다는 인천부외리(仁川外里)정갑용(鄭甲溶)(三?)과 수원군안룡면안녕리 (水原郡安龍面安寧里)백봉흠(白奉欽)(三?)과인천부송현리(松峴里)김만석(金萬石)(三?)등세명에관한 치안유지법및출판법위반 피고사건은 이십구일경성지방법원에서 산하(山下)재판장촌전(村田)검사의당임으로공판이 잇섯는데 사실심리가끗난뒤검사는 정갑용에 징역이년、백봉흠에징역일년、김만석에 징역일년을 구형하엿다 판결은 오는이월십일에 언도하기로되엿다

鏡湖橋不日落成

【丹城】 경남산청군산청면(山淸郡山淸面)과 금서면(今西面)사이에잇는 경호강에는 다리가업서하절에는 홍수로인하야 교통이두절되는등 지장이만흠으로 량면면민들은 가교(架橋)를갈망하야 오든차에 작년이월에 산청면유지김기정 최렬만(崔列萬)씨외다수유지의 발안으로 경호교가설긔성회를 조직한후 량면에서사천원을거두고 도비보조를바더 총공비이만이천원으로 공사를 진행중이든바 불일간에 락성을보리라한다

黃海道簡易校 一郡一個所

【海州】 황해도의 간이보통학교(簡易普校)시설은 작년도에 일군이개소를 시설하엿스나 금년도에는 국고보조(國庫補助)관계로 일군일개소밧게는 신설되지 못하리라는데 일면일교가 완성되여도간이학교제는 그대로 당분간계획을진행하리라한다

天氣豫報

晴一時曇

高氣壓은 中國內地에잇서七七二미리를보이고거기서氣壓은朝鮮을거처日本方面에 나려지고잇스며弱한 低氣壓이 西國압바다와日本海北部에 잇다 全朝鮮暗雲不定이요 京城에는少雪이 잇다 氣溫은釜山零度와 中江鎭零下二十六度間에잇서 昨朝보다二度乃至六度高하엿다 明日도天氣가조코추이는풀린다

昨日 最高 零度九 最低 零下十度五
今朝 零下六度三
今日 [illegible] 零下[illegible]度五

斯界의聖業인電醫

最新物理醫療師養成 生徒大募集

▲本院卒業生은 內鮮各地開業資格을得함

▲成功의最捷徑이요民衆의尊敬的인聖業

內務省令이不遠發布되여資格公認許可制가되기前에修學하여無資格者를免하라

本院은內地各學校以上의充分한資格잇는設備完全한學院이며院長은東京電醫學校創始者인故人이다勿論他院의模倣을不許하는朝鮮唯一의本院內容을必히一覽하라

▲內容規則書入用者는郵券三錢을申込하면送呈함

◎男女共學

京城府黃金町三의三四四

認可京城電醫講習院

東京電醫學校實習院

태평레코-드

●태평레코-드● 二月新譜 二十八日發賣 一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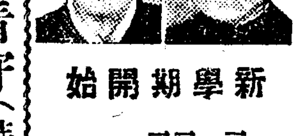
流行歌 즐거운戀歌 / 거리의香氣 具祖布
俗謠 긴아리랑 / 新漢江水打鈴 金玉葉 李眞紅
短歌 白髮歌 吳太石
春香傳 軍奴使令

●기린레코-드● 六十錢

民謠 新아리랑 / 夜鳴鳥 申紅心 林生員
流行歌 結婚風景(上)(下) 金玉丹
단센쓰 敗卒타령 韓成基
三國誌 재宽 (?)
短歌 名妓唱 / 丈夫恨 宋蘭香
俗謠 二八春歌 / 靑春歌 李映山紅 金眞鳳
興甫傳 興甫쫓겨나는대목
水宮歌 王曰然하다 金柳鶯
春香傳 일절통곡(上)(下) 韓成基
鄕土劇 三夢과玉峯아(上)(下) 金門石
西關說論 발님 箕城八景 金宗朝
傳說 공쥐팟쥐(上)(下) 朴鳴石
京劇 벽창호와 멍텅구리(二枚)

기린레코-드

新學期開始



簿記學生徒募集(講義錄)

一、自宅獨學에最少한費用과時間으로確實한會社員과銀行員에資格을得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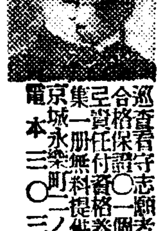
一、三個月卒業으로最高等簿記學敎授

一、男女不問本會卒業證一枚로就職先紹介

(規則書進呈郵券一錢切手)

京城府永樂町二ノ二 電話本局三〇二〇

第一高等簿記學校



巡査看守(講義錄)夜學도開始

巡査看守志願者는本會講義錄卒業에依하야合格保證○一個月의速成科及三個月의普通科로資任付資格養成會則明送最新巡査試驗問題集一冊無料提供(但入會者에限함)

京城永樂町二ノ二 電本三〇二〇

朝鮮警務學會

登錄商標 거북선

고무신은거북선

京城東大門外서울고무工社 電光一一五九

在京中은公私共히格別한懇情을바다기感謝의意를表합니다 二月四日午後三時當地發退京하게사오니今後도愛護하여주심을바라나이다

淸水重夫 子

家庭

불이야 불낫슬때 어떠케 모면할까

불은 누구에게나 사정이업다

◇가정에서 꼭 아라둘일

불은 무서운것입니다。치닷는 불ㅅ길에인정이업는날이라 집이고 세간이고 사람의생명이고 사정을둘까닭이업습니다。

각가정에서 불조심을지극히해야 할것은물론이지만 불이날때에는 어떠케해야하겟습니까? 도둠건을사러 백화점에를가거나 음악을듯고활동사진을보러 극장과공회당가튼데를찻나가 불씨에불이난다면 어떠케해야합니까? 그런만일의경우를 예비키위하야는 준비지식이필요합니다。지금거긔대하야 경성소방소(京城消防署)신해공서장(新海公署長)의말을 들어다가 전해드리려고합니다

불이처음낫슬때

맨먼저불을어름어름해서 끌수가잇슬까 또는소방대의힘을빌어야할까 정확한판단을가저야합니다。여긔대한 판단을잘못하다가는 소방대의헛소동도이리키기쉬웁지만 그보담더큰불을맨들념려가잇지안습니까? 그다음으로소방대에 전화를걸더라도 좀정신을 차리어 찬찬이해주어야합니다。그저「불이요」하고만 전화를끗는수가잇스니 그런때에는소방대에서 그처소를알도록지체될것이아닙니까? 그러고조그만불이라고 끌어들어가거든 외투、두루맥이이불、보료갓흔것을 뒤집어쓰고들어가는것이 조슴니다。불은결국공긔(空氣)로부터 산소(酸素)를 바더야타는것이니까 그런것으로 불을 덥거나가로막아 산소를못밧도록하는것이 조슴니다。하여튼불은처음의일분이 제일긴요한대목이니 그대목만노치고나서는 이십분을타나 삼십분을타나거의한시간동안타버린준해를 입게되는것입니다。

이웃집에불낫슬때

얼른집웅에 올라가서 물을퍼부어그집웅을흠신 적시어야합니다。불이 정신하야 불똥이떨어지는데는거적이나 공석이나 또는이불가튼데 물을적시어 가로막아두어야합니다。그러타고 엇지안심이야할수잇습니까? 귀중한가장즙물은 빨리빨리 완전한처소로운반해다가 두어야 할것입니다。

옷에불이붓슬때

불이옷에부텃다고 들뛰면붓는불을부채질하는셈이라 절대로못씁니다。또여페 사람이잇다가물을끼언저준다면 불부튼사람이까쓰를 흠빽드리마시어 생명까지위험할는지모르는것이라 그역시절대로못씁니다。그저자긔스스로옷을버서버리는것이 제일조흐나 좀처럼그러케되지안습니다。그러니까 옷에불이붓거든 더퍼노코 평평한데로 뛰여나와 뒹구는수밧게업습니다。

불불피하는방법

연긔는우로올라가고 공긔는아래에잇스니까 서서나오는것보담은긔어나오지아니하면안됩니다。또 연긔에가로막히어길이잘안보일것이니까 단벼락편에부터서 그것을딸아살살걸어나오지 안하면안됩니다。물에 축인수건이나 해면(海綿)과가튼것을 입에물면조흐나 불속에서그런것을어느경황에구할수잇습니까? 단지불속으로 뛰어갈경우에는 그런것을준비 하여야합니다 또그집의방이며 문이며를조리잘알아야피하기조치만 그런사람이 불속에들림벗이야 잇습니까? 단지그역시 불속으로 뛰어갈경우에는그런사람만을 드려보내야 합니다 철근콩크리트의사오층 양옥으로 말하면 이층이나 삼층으로불에다 타버리고 사층오층은 아즉괜찬흔때도잇습니다。그런때사오층사람들은 그저아래로만 나려올려고 하다가 도리어사흔마상을내지만 그보담옥상으로 올라가서 소방대의구조를 기다리는것만 갓지못합니다。철근콩크리트가 부서지기야 하겟습니까? 그러니까 당분의피신책으로 옥상이조흔것아닙니까?

불에대한준비점

수도가잇는집에는 수도로부터 집안어데나가서다흘만한 고무관을준비해두는것이조코 수도가업는집에는 큰독개그릇에 물을그득히담아두는것이조흡니다。소화전(消火栓)은 천장으로 불이부틀경우에는 소용이업다고 오죽아래로불이부틀경우만끄게되는것인데 그래도큰건물에는 반듯이준비해두는것이 조흡니다。

어찌하리까?

남편은부랑하고 식집에선구성을

문 저는 금년스물다섯살된 녀자로서 열아홉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스물하나에식집을왓습니다。저의친정도면새량반이러니와 식집도행세하는집이랍니다。남편은중학교를졸업한후 전문학교에다닌다고하더니 기생에게반하얏다는둥 카페껄과 련애를한다는둥떠들다가 고만학교도집어치우고 고발부랑자의생활을 계속하고잇습니다。본래내마음에맛는남편을내눈으로고른것이 아니니까 서로성격이나 리상이야마출턱이업겟지만 남편이그와가치부랑하게되매더한층의가뻐게될것은사실입니다。더구나완고한식어머니와 식할머니는자긔아들이나 손자를 잘못육해노흔것은 깨닷지못하고 가룰잘못드리어 그러타고도리어저를 원망하시지안습니까。그이외에도 식고모、식누의등의 식집부치들이 번열하야서이려케말속질을하고 저러케책망하니 나날이괴롭고딱한날이만흘것아닙니까? 제사정을리해해주는 오라버니는 저더러리혼을하고친정으로 오라고권합니다 고 식집에처바히어 이봉욕을참읍니까? 생각할사록 속에서불이라오르지안습니까! 참고참아말슴을 드리는것은 식집도 부자지만 친정도 견듸는편입니다。리혼을 한후라도오라버니께여주어 생활비는지장사미천쯤은통동하기가능합니다(市內一女性)

더참을수업거든 팔짜를고치시요

답 고초당초맵다해도식집살이가더하다는 동요도잇지만 일속이우리할머니 들은 식집살이란 운명적실아래 반쪽어서 일생을보내오섯습니다 그러나 지금도당신은 이매운 식집살이를 당하고게시다고요? 참으로딱하고 가엽슨노릇입니다。그러나 식집살이가 비록고초당초보담 더맵다고하더라도 밤저녁 남편의따뜻한위로를가저 모든것을 이저버리고 살수도잇는것이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은남편조차부랑하야 안해의고생을 일요? 참으로 딱하고 가엽슨모양이지요。왜그러데당신은오라버니의권고대로 얼른리혼을해버리고 그런굴혈에서버서나지 안하십니까? 당신의말슴대로소생도업는몸이 무엇을위하야그봉욕을감심하십니까? 당신의아버지만이량반이아니라당신도훌륭한량반의딸입니다 왜그러냐고하면 당신의고생으로부터는량반의체모를 직히는이외 아모다른리유도 발견치못하는까닭이외다。물론남편의마음을돌릴수만잇다면 될수잇는대까지돌려가지고 화락한가정을이루는것이 착히나조호오릿가? 식어머니며 식할머니가 아모리말성을부리고 식고모식누의가아모리 극성을떨더라도 그쯤이야좀참아도 조치안켓습니까? 그러나 오죽해야오라버니로부터 자긔누이를 보고리혼하라고 권고하겟습니까? 당신은 량반을떼내버리고 좀더용긔를 내실수업것습니까? 그래서될수잇는대까지 장사를하다든지공부를한다든지하시는것이 조흘까 합니다。서서히돌보아 맛당한사리에 재가를가시더라도조금도 늦지안슴니다。【記者】

글씨쓰는쥐

체코슬로바키아ㅅ사람 쪼젭·노보트니군은 번래사자를 길듭이든사람인데 요사이는쥐와토끼에게재조를 가르키기에전력을 다하고잇다。그래서요지음은쥐를시키어압발로 글씨를 쓰이는데성공하얏다。먼저 쪼셉군이명령을나리면 쥐는압발을 잉크ㅅ병에너허서잉크를 무치고그다음그가전보신호(電報信號)를치면쥐는그신호를하나하나 조히우에다가옴기어적는다。쪼셉군은 말하기를『쥐란놈은 사자와달러서 아조겨룸뱅이기때문에 대단히끈란합니다。할수업시오래ㅅ동안굼기어가지고 시키는대로한 후에야 음식을먹이게됩니다。그러나쥐는또아조약전치를못합니다。조금만내가한눈을팔면 그정도망질칠려고만합니다』

세계에서제일 자식만흔사람

아마 세계에서 제일자식만이 맷는사람이겟지요。미국『마사츄세』주『데탐』이란 곳에사는 조셉·웰스란 여든네살된 목수(木手)영감님 말입니다 그는 지금도 기운이 정정한데 자식이 작으만치 서른다섯이나되던 합니다 사진에잇는 그의부인은 둘째로 어든안해인데 그의몸에서만 열일곱을나핫스니 어지간들 하지안습니까 백자천손(百子千孫)이란 옛말이 잇스나 그것은 한남자가 첩을만히 거느리고 살든 옛날 동양사회에 잇슴만한 일이거니와 이로인은 겨우두안해에게서 이백사십인의 자손을 어덧스니 어덧습니까 어느모로보면 사람도무서운동물이기지요

싸베트러시아의 兒童管理所

지난날버려두엇든 어린兒童들의 프레듸듸옴아동관리소 ― 사진에 보히는것은『어린이의집』에서 다른집에들과가치 친목적으로두어잇는것입니다。여기서 그들은 주의깁흔 교양자의 보호미테 보드러운 오을 입고잇습니다 그들은 깃브고 신념잇게 서로 씩씩한얼굴을 바라보고 잇습니다。

가진떡다령 (二)

가루다루는법과 가진편안치는법

김치국만마시면서 미련生

가루다루는법

편이고 보통떡이고 제일중요한재료가 가루임에틀림이업겟지만 그다루는방법과안치는방법이서로갓지안습니다。더구나보통떡에는 고명을너키나말거나 상관이업지만 편에는반듯이고명을너허야하고 또편을딸아 고명이서로갓지안씁니다。

첫재 백편만은 가루 그대로도쓰지만 딴편은 전부 가루그대로쓰지못합니다。다시가루한말에 냉수한사발씩 석거가지고 손으로문질러가며 도둠이(체)로나리지안하면안됩니다。

둘째 백편은 물을부어 도둠이로나리지안는까닭에 끈긔가업기쉬우니까 찹쌀가루를좀석거두는것이조슴니다。맵쌀화인한되에 찹쌀은서너숫가락쯤석거도 아조 조슴니다。

셋재 꿀편에는 설탕이나 꿀을너허야하는데 설탕이거든 가루에석근뒤 물을붓고 도둠이로 나리고 꿀이거든、에당초물에타서붓고 도둠이로나립니다。설탕이나꿀을가루에너허가지고는 맛을보아가며 달콤할정도로해둡니다。

넷재 싱검치편에는 싱검치ㅅ가루 즉당귀ㅅ가루를너허야하는데 그것은물로먼저가루에석근뒤 나좀물을붓고 도둠이로나립니다。당귀ㅅ가루가만흐면쓴고로적으면빗갈이아나게되니 알마큼석거야합니다。

편안치는법

첫재 맨미트로 팟편을안치고 그다음으로 녹두편을안치는데 팟편과녹두편에는 다각각메편과찰편이잇스니까 메편을먼저안치고 찰편을나종안치야합니다 녹두편우으로는 깨편 두텁편、꿀편 싱검치편의순서로안치고맨우로는백편을안치는데 그중두텁편하나만이찰편이고는 전부메편입니다。중간의순서는다소박구어도무방하겟지만팟편녹두편을맨미트로보내고백편을맨우로보내는것만은 박구어서안됩니다。팟편녹두편은 케가제일두껍고 또고물에김이만히올라도 조치만 다른편은 그보담케가얄고 또고물에김이만히올라서는못쓰며 백편은케가제일얄고 또고물이업서서김이비교적적게올라도조치만 달은편은 그보담케가다두텁기도하고 또고물이잇기도해서 김이좀더올르지안하서는못씁니다。

둘째 팟편과녹두편은 부인네장지가락으로 한마듸만안치되찰편은메편보담도 약간얄깨안칠것입니다。왜그러냐하면 찹쌀ㅅ가루는 얼마줄어들지안치만 멥쌀ㅅ가루는 좀만히줄어드는까닭입니다。깨편 두텁편 꿀편 싱검치편등속은 팟편이나녹두편의 치룸쯤되게안치고 백편은아조그반쯤되게안칩니다。왜 그러냐하면 팟편녹두편이외의다른편、그중에도백편은두께가두꺼울사록맛이업서지는까닭입니다。

셋재 편을 안칠때도 보통떡과가티 케와케가 즉접맛닷도록 되여서야 엇지쓰겟습니까? 우케의고물 아래케의고물이 어떠케든지섯기지안토록하여야할것이아닙니까? 그러키에사이사이마다두꺼운백지를깔고 밝개깃으로술술기름칠을해둡니다。단지조히가 두껍지안키나 기름칠을안해두어서는 나종에떼낼쑤가업서서도리어더럽게될우려도업지안습니다

넷재 편을안칠때도 보통떡과가티 떡떡가루를떠붓고 도합부루고물을뿌리어서야 쓰겟습니까? 한케의 둡게가 이모저모 평균하도록 하여야 할것이아닙니까? 그러키에 한케의 가루를펴노코는 여긔저긔 손까락을 찔러보아서 가루를고르게하고 니흘고명을다너코는 백지를깔뒤한번사르르손질을해서 고명도 잘박히게합니다。단지손질을데룽져게하다가는 가루가눌리고 고명이실그러저서 도리어 보기숭업게될는지도모릅니다。

사랑만 잇스면

지난 우리열나흔날。미국『뉴욕』결혼등기소에는 진기한 청춘남녀 한쌍이와서 허가ㅅ증을청구하고 잇섯습니다 신랑은 사십오세인데 키는 물과 석자여덜치、신부는방년이 이십일세 몸무게는 아이구나 사십딸관。이두사람은 어떤레뷰!단의 화형이랍니다 이걸보면 조물쑤도 상당한작난꾸러기요 익살쟁이지요

우리차지

이 치운날
해도 뜨기 전에
우리 아버지는
나무빨 끌고
서울 가셧서요
우리들 설빔때메

해가 젓는데
왜 안도라 오실까
나무가 안팔려
거리를 헤매시나
안 팔리거든
그대루 오서요
아버지 오실 길은
오십리 땅이 어렷
습니다。

글쓴사람 (강정순)

創作童話 따의별 【一】

丁友海

동길이의집은 마실에서 외따로 떠러진 산길맡에 오막사리엿습니다。울타리도업는 달낭방 한간 부억한간의 집에서 어머니와 누님과 동길이 세식구가 살엇습니다。

동길이의집도 그전에는 마실 한복판에 잇엇는데 아버지가일본으로 돈벌리가진지 오년이되도록 아무소식이업고 아버지안게신 살님은 날로떠라 어려워저 가서며칠전에 이집으로 물너나게 되것입니다。

동길이는 올에 열살인데 살님이 이지경이니 학교는 마음에도 부여보지못하고 지게를지고 나무를 긁엇습니다。그래도 집이 마실에 잇을때는 저녁이면 동무들과 자미잇게 모여놀앗지만은 이외딴집으로 옴겨온 뒤로는 어린 몸이라 밤에마실에 갈수도업고 이오막사리로는 동무들도 차저주지안헛습니다。그래서 초저녁부터 자리를 펴고 눕지안흐면 안되엿습니다。그러하나잠은 더 늣게까지 들지안코 마음만 뒤숭숭해서 괴로웁고 갑갑하기만하엿습니다。그럴때마다 동길이는 마당으로 나와서혼자 바람을 쐬입니다。

이동길이집 마당에서는 저-멀니잇는 불빗이 하나보엿습니다。강을건느고 들을지나 동길이집과 맛바라뵈는 산마루터에 역시 와딴집이 한채잇는데 그집들창에서흘너나온 불빗이엿습니다。동길이는 이불빗치 조햇습니다。사람의손에 켜진 불빗으로 여겨지지안코 꼭하늘에큰 별이한개 떠러저서 저녁마다빗치는것만 갓햇습니다。동길이는 이불빗을 따의별(地星)이라고불넛습니다。그래 밤마다 나와서 혼자외로히 뜰을걸니며 따의별을 보다가들어가 자는것이엿습니다。따의별은 보아도 보아도 실치안코 동길이의 마음을 더욱 이끌엇습니다。

『오!따의별!』

동길이는 오늘밤도 마당가에 노힌반석에 걸터안저 따의별에서 눈을떼지안헛습니다。

『동길아 너 무엇을 그러케열심히 보고 잇느냐?』

『저-따의별!』

누님이 박게나왓다가 엽흐로 가까이오며 뭇는것을 동길이는 손가락을 들어 갈으키면서 대답햇습니다。

『그불빗이 그러케도 아름다우냐?』

누님은 동길이의 어깨에 손을 언즈시며 말햇습니다。

『아름다웁고 말고요!』

동길이는 누님의손을 맛잡으며 보드라운 누님의 대답을하면서도 눈은 따의별에서 옴기지 안헛습니다

『동길아 낫에 나무를 마히해서 곤할터이니 일즉 들어가 자자!』

『누님 내 말좀듯고 가세요』

돌아스든 누님은 다시 동길이의 엽으로 갓습니다。

『무슨 말이니?』

『누님!저 따의별 말이여요! 저기는 누가 저러케 불을켜노코 누가 무슨일을 하고잇슬가요?』

『글세!아마 너만한 아기하고 그애어머니나 할머니하고 화로불 가운대 끼고안저 불을 도두어가며 옛날이야기를 자미가 옥실옥실나게 하고 잇는지도 몰으지!』

『그럴가?』

『이애 그런건 그만생각하고들어가자자』

『누님 먼저 들어가세요 나는 조금만 더 잇다 곳 들어갈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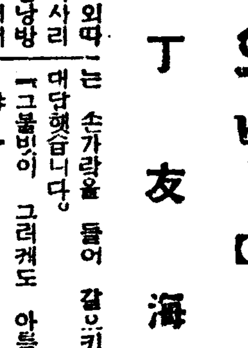
동길이는 또혼자 외로히 남어서 따의별을 바라보고 잇섯습니다。

세계뉴스

세계에서제일큰 불란서의려객선

불란서에서는 놀만듸호라는려객선을 새로맨들엇는데 그길이만도 엇지긴지 일백여든한칸이나되고 연돌이셋이섯는데 연돌한개를 잡바트리어놋는다면 자동차네대가 나란이서서달릴수잇답니다。총톤수는 칠만오천톤 그것은집채가튼배라기보담도 대궐채가튼배라고할것입니다。

라디오



曆

一月三十日(水) 舊十二月(大)廿六日 丙午·水·參·執

▼小寒 六日(舊二日)
▼大寒 廿一日(舊十七日)
▼滿 十九日(舊十五日)
▼月蝕 十九日부터廿日에

一月二十九日(火曜)

◇午後六時 童謠 一、齊唱까치야 二、同소끌아츰 三、獨唱초ㅅ불맛 四、齊唱아것씨모자 五、同기럭이잡기 六、獨唱달밤의沙漠 七、齊唱넘어젓다넘어저 八、同셋풀 九、獨唱저기저동리 十、齊唱캉캉여우 忠信學院兒童 指揮及伴奏 金龍煥
◇同六時二五分 라듸오學校 泰西畵家列傳(一) 柳艮星
◇七時三〇分 講話 議會政治에對하야(一) 朝鮮日報主筆 徐椿
◇同八時 京畿歌謠 一、時調와男唱지름 二、平壤歌 三、달거리、四、朴淵瀑布 五、노래가락 張香蘭 孫瓊蘭
◇同八時三〇分(東) 피아노와管絃樂 피아노協奏曲 第二番C短調 산사ーㄴ스作曲 第一樂章 안단테소스테누ー토 第二樂章 알레그로 스케르잔도 第三章 플렌스토 피아노 마다라!맛손 日本放送交響樂團 指揮 山田耕作
◇同九時 唱劇調 一、短歌 瀟湘八景 二、赤壁歌 曺學珍 鼓手 韓成俊

一月三十日(水曜)

◇午後〇時五分 西道歌謠 一、긴아리랑 二、꼿방아타령 三、베틀가 四、도라지打鈴 五、노래가락 六、靑春歌 七、漢江水打鈴 唐秉稷
◇同二時 衛生講座 學齡兒童의家庭衛生(二) 趙東秀
◇同六時 童話 일허버린人形 梁在應
◇同六時二五分 라듸오學校 泰西畵家列傳(二) 柳艮星
◇同七時三〇分 講演 議會政治에對하야(二) 朝鮮日報主筆 徐椿
◇同八時〇分 流行歌 一、이나곳머무러…金駿泳作曲 二、順風에돗달고 三、먼동이터온다 同 四、눈물저즌伽倻琴 金基玹作曲 五、荒城의悲哀 金駿泳作曲 六、落花岩차저서 七、서울名物 全基玹作曲 姜弘植 伴奏 오ー케스트라
◇同八時三〇分 映畵이야기 시악씨時代 徐相弼 音樂伴奏
◇同九時 歌詞 一、길軍樂 二、乾坤歌 金花香 安鶴仙 大笒 金永根

一月三十一日(木曜)

◇午後〇時五分 伽倻琴倂唱 一、御調 二、唱劇調 沈淸歌 朴秋月 鼓手 林鍾成
◇同二時 家庭講座(一) 玄得永
◇同六時 童謠獨唱 一、달아달아 二、아가야가 三、나비나비 四、다박머리 五、비야비야 六、새야새야 퇴골이會唱員 피아노 金泰哲 클라리넷트 尹喜永
◇同六時二五分 라듸오學校 泰西畵家列傳(二) 柳艮星
◇同七時三〇分 (三宅鹿太) 日本綿業의世界的躍進에對하야 西村眞太郎 譯講
◇同八時 西道歌謠 一、愁心歌 二、孔明歌 三、山念佛 四、寧邊歌 五、京西昭里 六、난봉가 朴慶姬
◇同九時 舞踊曲 一、念佛 二、打鈴 三、신아위 四、굿거리 奚琴 池龍九 大笒 方龍鉉 細笛 李日善 杖鼓 韓成俊

一等當選短篇小說 「소낙비」 【2】

金裕貞 作　宋秉敦 畫

떡로는비위도기여올랏다 정히못기여오를그런험한곳이면 중령줄에 매여달리기도하는것이엿다。때꾹에 절은 무명적삼은 벗어서 허리춤에다 꾹 찌르고는 호랑이숨이라 이름난 강원도산골에 매여달려 기를쓰고 허비적어린다。끌바람은 지날적마다 알몸을두른 치맛자락을 공중으로날린다。그제마다 검붉은 볼기짝을사양업시 내보이는 측덩굴의 그를 보더면 배를옹켜쥐어도 다모울것이다。마는 다행히 그윽한 산골이라 그꼴을 비웃는놈은 뻐꾹이뿐이엇다。

이리하야 해동갑으로 헤갈을 하고나면 캐어모은 도라지 더덕을업러 사발가웃 흥은두어사발남즉하게 되는것이다。그러면 동리로 나려와 주막거리에 가서 그걸 내주고 보리쌀과 사발바꿈을하엿다。그러나 요즘엔 그나마도 철이 겨웟다고 소출이업다。그대신 남의 보리방아를 왼종일 찌여주고 보리밥그릇이나 어더다가는 집으로 돌이와 놋희는 무어며 쁘쁘하노는 남편과 가치나누는것이 그날하로하로의 생활이엇다。

그러고보니 돈 이원커녕 당장 목을딴대도 피도 나올시가 의문이엇다 만약 돈이원을 돌린다면 아는집에서 보리라도 뀌어 파는수박게는 다른도리가업다。그리고 원동리의 안악네들이 치맛바람에 팔짜 고첫다고 쑥덕어리며 은근히 시새우는 쇠돌엄마가 아니고는 노는 버리롤가진 사람이업다。그런데 도저이제발 저리다고 그는 자기 끝주제에 제붙에눌리어서 호사로운쇠돌엄마에게는 죽어도 가고십지안엇다 쇠돌엄마도 처음에야 자기와가티 천한 농부의 게집이엇다。그러튼것이 어쩌다 복이 닥치려니 작년여름에 리주사와 은근히 배가 맞은뒤로는 얼굴도모양내고 옷치장도하고 밥걱정도 안하고하야 아주 금방석에 딍구는 팔짜가 되엇다 그리고 쇠돌아버지도 이게 웬땡이냔듯이 안해를 내여논채 눈을 슬쩍감아버리고 리주사에게서 나는옷이나 입고 주는 쌀이나 먹고 년년히 신통치못한 자기 농사에는 한손을 떼고는히짜롤 뽑는것이 아닌가!

사실 말이지 춘호처가 쇠돌엄마에게 죽어도 아니갈랴는그속까닭은 정작 여기잇섯다。

바루 지난 늦진봄 달이 뚜렷지게 밝은 어느밤이엇다。춘호가 보통계추를 보러 산모퉁이로 나간것이 이슥하야도 돌아오지 안으므로 집에서기다리든 안해가 인젠 자고오려나、생각하고는 마롤어누어 잠이들려니까 웬 난데업는 황소가튼놈이 뛰어들엇다。허둥지둥눈을뜨고 보니 우끌다가 놀라서『어악』소리를 치는바람에 그냥 다라난 입이엇엇다。어수룩한 시골엽이라 별반 풍설도 아니나고 슬쩍되엇으나 며칠이 지난뒤에야그것이 동리의부자 리주사의 소행임을 비로소 눈치챗엇다。

그런 까닭으로해서 춘호처는 쇠돌엄마와 죽접관계는 업단대도 그를 대하면 공연스리 얼굴이 뜨뜻하야지고 무슨 죄나진듯이 어색하엿다。

그리고 더욱이 쇠돌엄마가『새댁、나는 속곳이 세개구、버선이 네벌이구행』하며 아주 조라고 핼끌대는 그꼴을 보면 혹시자기에게 하는 가、가 아닌 줄을두고서 비양거리는거나 아닌가 하는 옥생각으로 무안해서 고개도 못들엇다。한편으로는자기도 좀만 잘햇드면 지금쯤은 쇠돌엄마처럼 호강을 할수잇섯슬 그런 갸륵한 기회를 깔살려버린 자기행동에 대한 후회와 애탄으로 말미아마 마음을 괴롭히는 그쓰라림도 적지안헛다。그러나 아무리 욕을 보드라도 나날이 심해가는 남편의 무지한 매보다는 그래도 좀 헐할게다。

오늘은 한맘먹고 쇠돌엄마를 차저 갈려는것이엇다。

×

춘호처는 이번 거롱이 허발이나 안칠까 일렴으로 심화를 하며 수양버들이 쭉 늘러바린 논두렁길로 들어섯다。그는 시골 아낙네로는 용모가 매우 반반하엿다。좀 야윈듯한 몸매는 호리호리한것이 소위 동리의문자로 외입깨나 하얌즉한 얼골이엇스되 추려한 의복이며 커커한 냄새는 거지를 볼질른다。그는 왼손 바른손으로 겨끔내기로 치맛귀를 여며가며 속살이 뻐젓가 조심조심이 거럿다。

감사나운 구름송이가 하늘전폭을 휘덥고는 차츰차츰 지면으로 처저나리드니 그예 산봉우리에 엉기어 살풍경이 되고 만다。먼데서 개짓는 소리가 압뒤산을 한적하게 울린다。빗방울은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드니 차차 굵어지며 무데기로 떨부어나린다。

學藝

史上에나타난 藝術家의群像 (2)

……湖岩

樂聖于勒과 伽耶琴

꽃피는 아침 달밝은 저녁에 詩를 노래하는 風流客들이 淺酌低唱할때 그 興致를 도두기爲하야 흔히 伽耶琴의 曲調를 타게된다。

伽 耶琴은 옛날부터 固有한 樂器로 于勒(우륵)이 만들어준것이니 오늘날 남아잇는 朝鮮最古의 鄕土樂이다。

그러면 于勒은 어떠한 經歷을 가진人物이며 또어떠한 技術로써 伽耶琴을 後世에 傳해주게 되엿는가 함은 누구나 알고싶어할 일이다。

于勒은 본대 伽耶人(金官國人이라한다)으로 伽耶國이 亡하려할때 그唯一한 藝術的財産인 伽耶琴을 안고 또 그弟子인 尼文을 데리고 이웃나라 新羅에 投化하야 餘生을 伽耶樂의 保存과 및 그發展을爲해서 貢獻한 大樂家이엿다。

史記를 들친대 지금으로부터 約一千四百年前에 慶尙北道一隅 洛東江上流에 大伽耶(高靈)란 나라가 잇섯는데 그國王嘉悉이 音樂을 愛好하야 十二絃의 거문고 하나를 創作하니 이는 대개 十二個月을 본대떠슴이다 一說에는 國王의

樂 師인 于勒이가 이것을 製造하엿다고하나 그實인즉 嘉悉王이 于勒에게 命하야 맨든것이 아닌가한다 何如튼지 于勒이가 이十二絃琴에 마추어 十二樂曲을 도지게되엿는바 이十二曲의 名稱은 아래와 갓흐니 곳 下加羅都、上加羅都、寶伎、達己、思勿、勿慧、下奇物、師子伎、居烈、沙八兮、爾赦、上奇物이다 于勒의 弟子尼文의 지은三曲이 잇스니 그曲名은 烏、鼠、鶉이다

이들曲名의 意味는 오늘날의 우리로서는 잘알수업스나 적어도이樂器와 이樂曲은 嘉悉王과 于勒師의 兩人合作이거나 그러치안흐면 于勒一人의 創作이엿슬것만은 옴길수업는 史實이다 이와가티 樂器뿐이아니라 樂曲에 이르기까지도 純粹히 伽倻人의 獨創的頭腦에서 투여나왓슴으로 後日新羅人이 伽耶琴이라고 命名한것이다 그러치만 伽耶琴의 由來를 좀더

分 明히 따진다면 伽耶琴이라고함보다 于勒琴이라고 命名하는것이 차라리 더 適當할는지 모른다。

以上은 于勒의 藝術的活動의 一面과 伽耶琴의 起源을 잠간 말하엿거니와 그는 幸인지 不幸인지 그가生長한 故土에 잇슬수 업서서 마침내 서름을 품에안고 飄泊하는 몸이 되고말앗다

藝術에는 境界가 업다하지마는 亡해가는 伽耶를등지고 新羅로 向할때 于勒의 가슴에는 깁흔 서름이 업지못하엿슬것이며 그눈에는 뜨거운눈물이 업지못하엿슬것이다

于勒의 新羅投化를 그一生의 劃期的事實로 삼아 前半生과 後半生으로 난호다면 그 前半生의 藝術上活動이 後半生의 그것보다 월등히 華麗히 빗나는 바 잇다 다른것도 아니다 그 伽耶琴과 함께 新羅에 잇서 그時代의 新羅樂界에 하나가 되엿슬것이 아니나

于 勒이 어리케 樂界의 異彩가 될에 이른것은 그의 天稟이 天才이려니와 이밧게도 또한 다른原因이 잇스니 그는 다른것이 아니라 背景과 機會이다 아무리 그가 偉大한 藝術家라도 新羅王室의 積極的獎勵가 업섯드면 셋고 有力한 弟子의 繼承者가 업섯드면 當時에 크게 나타나고 後世에 길이 傳해젓슬는지 자못疑問이다。이로보면 于勒은 古來幾多의 薄命한 藝術家에 比하야 幸運兒라고 할수잇다。

◇◇朝鮮文學上의 復古思想檢討◇◇

古典文學과 文學의 歷史性

「古典」「復興」의「問題」

古典復興의 社會的必然性

【二】……崔 載 瑞

어서두른一文은 朝鮮古典復興을 實踐하라는 이를 爲하야 ……것이다 古典은 人爲的으로 어느程度까지는 復興식힐수잇다。一例를들면 爲政者가 國民敎育을意識하야 古典을 敎育的으로 復興식힐수잇다。그러나 이런境遇에는 結局三四種의 古典復刻과 宣傳삐라와 라듸오放送二三回와 展示會마듸에 끈치는수가 흔하다。政治的威力을 가지고도 이만한結果밧게 못보는것은 結局 民衆의要求가 업는곳에 古典은 復興되지안는다는 眞理를 證明하고잇다。草木도 土壤이맛지안으면 뿌리가 박이지안커든 하물며 理性과感情을가진 人間精神의 所生임에잇서서이랴!

古典復興은 古典이 復興될만한 社會的 必然性이 잇슬때비로소 可能하다。그러면이社會的必然性이란 무엇이냐? 바꾸어말하면 이必然性을 構成하는要素는 무엇이냐? 第一에 舊傳統과 絕緣한 過渡的社會、第二에 新傳統의 建設을欲求하는精力과 熱意、第三에 그

過渡 的社會의 趣味感受性要求等)와 本質에잇서서對應하는 舊傳統의 具體이다 얼른現代英國에 例를들면 위선 十九世紀의 浪漫的傳統과 絕緣한 過渡的社會가 存在한다 둘재로 그들은 世界大戰以後 許多한 絕望과疲勞는잇지만 何如튼 破壞된文明우에새로운 文明을建設하라는精力과 熱意가잇다 그리고 셋재로 그들의趣味(枯淡한趣味와理智的인 感受性과 絕對的 建設的인 要求等)와 本質에잇서서 酷似한 十七世紀傳統이잇다。이에비로서 우리가오늘날보는英國의 十七世紀復興은 成立되다 이것은 누구라 억지로떠맛긴復興이아니라 自然發生的으로 民衆의 사히로부터 우러난復興이다。

그러나 人間의 精神生活에서

古典復興이란 大體로 엇재서 생겨나느냐? 나는이點을 더좀 仔細히 생각하야보고십다 엇던 社會情勢에對하야 사람은 거긔 適應하는一定한態度를取한다 이 態度가 대個人의 態度가아니라 社會全體의 態度가될때에 그것은卽 그社會의傳統이다 이로말미아마 그社會의思想 象徵 表現手段等이 어느程度까지統一되다 그리고이 가치統一된傳統이 한번樹立되면 사람들은 그傳統을 떠나지아느려고한다 이것은結局 統一을사랑하고 混亂을嫌惡하는 人類의本能의發願이다 그러나 엇던原因으로말미아마 社會情勢가 一變한다고하자 그때에 그社會의

社會 全體의 態度가될때에 그것은卽 그社

사람들은 分明히깨닷지는못하면서도 態度를곤처서 一變된社會情勢에 順應하랴고한다 여기서처음이러나는現象은 舊傳統과의 絕緣이다 環境이바뀐뒤에도 依舊한態度를繼續함은 위선 生物的으로苦痛인까닭이다 둘재로이러나는現象은 이새로운人生態度를 體系化할만한 新傳統에對한 强烈한欲求이다。人生態度는 늘 無意識的이다 그것은 마치 盲目的으로움직이는 時計의태엽이다 그러나 이태엽의運轉을 表示할指針이업슬때 우리는 몹시 不安을늣긴다。우리의

地位 를 늘自覺하랴는것은 우리의理智이다

여기서 우리의漠然한 人生態度를 體系化하랴는 建設的欲求가 나타난다。그와同時에 우리의欲求를 表現하랴는 藝術的熱誠이 생겨난다。그러나 問題는 우리가 남은집을 나오기는햇스나 果然우리의欲求를 滿足식힐만한새집이 그리쉽게 손에 두러오느냐?함이다。現代歐羅巴文學의不安과動搖 許多한探索과 奇怪한實驗을볼때 우리는 이問題의內容을 대강짐작할수잇다。

이런境遇에 사람은 一時的方便으로서 엇비슷한 賃집을 求하야든다。그는 이假屋에 몸을避하야 그곳에서 徐徐히 自己의行路를思索하고 또 거긔對한準備를 할것이다。人類의 精神生活도 本質에잇서서 이와다르것이 업다。過渡期에선 모든人種은 自己의 새로운(그러나 漠然한)趣味와 感受性과 要求를 表現한 새로운象徵과 方法을發見할때까지 一時的避難所를 求한다。그때에 避難所로서 擇되는 傳說(이럴때 古典이라간다)은 그本質에잇서서 將次 建設될傳統과 類似할것이다 다시말하면 그舊傳統의發生原理가된 人生態度와 現在의形成中에잇는 人生態度는 그原型에잇서 同類이래야할것이다。

또 다시한번 英國의例를들면 十七世紀의 人生觀은 宗敎的絕對主義엿다。現代英國人의 人生觀은 알수업스나 大體로 科學的絕對主義의方向을取하고잇다 (絕對主義란 人間의生命을基礎로 한 自然主義的相對主義의 反對槪念이다。)이것이卽 現代英國과 十七世紀英國을 一時的이나마 連結할 有機的必然性이다。내가 古典復興의 社會的必然性이란 以上말한것을意味한다。

漢詩

碧梧山人 考選

紅梅 (選外佳作二)

槿松里 金基俊

雪裡羣芳不敢紅
此花惟有獨春風
色姸醉臉濃粧裡
影拂絳羅活畵中
淸姿何論桃杏院
寒魂不入蝶蜂叢
歲闌心事從誰說
臘酒吟窓與爾同

☆……겨울의 魅力……(米洲의風景)……☆

海外뉴-스

로시아의 白칼라流行

今日싸베-트는 以前에는服裝에 無關心하여 亂雜한時代가잇섯는데 最近은官廳에서도 白칼라를한것이 눈에띄인다 萬一官廳에서 書記가 수염을깍지안코 오면 돌려보낸다한다 工場에서는 技師가 機械를點檢하기前에 勞働者들을整列식히고 한번엽궁을보려온다 이브닝드레스가 느는것은 싸베-트에서는 只今까지 外交官以外着用하지안헛는데 最近절믄이들도 이브닝을만히입는다고한다

細菌上空飛行

미듸의 報告書

【와싱톤發聯合郵信】米國空界의 寵兒린드바-大佐는 最近다시그名聲을 一新하엿다。그것은一九三三年녀름그의 內外가 諦조케北大西洋橫斷飛行을 行햇슬지음 途中上空各地點에서 捕捉해온 空氣中의微生物을 研究한結果 各種病原菌을含한 바테리아、茸類의胞子、花粉等等이 바람에불려 悠悠히上空으로 올라가大西洋을 넘고잇다는事實이 實驗的으로證明된 까닭이다。그러라고 그것은린드바의發意로 된것이아니니 植物病理學者요 農林省技師인 푸레드 시-、마이엘氏의 依賴로가저다온것이요、또同技師의손으로 分析研究된것이나 린드바를 有力한協力者라고안할수는업다。

엇재든그價値는 決코 적은것이아니니 穀物、森林乃至人畜에害惡을기칠 有機物이 산채로 高空에 떠다니어 防止할 도리가 업다는것은 重大한問題다。린드바大佐가가저온中 穀類의疾病、黑穗病菌의 胞子며 馬鈴薯의早期枯死病、林檎의斑點病菌乃至樹木의 害菌其他無數하다

◎……伊太利파시스트의 던지는運動

演劇에잇서서 文學의位置 (5)

타이-롬흐 / 咸一步 譯

詩人은 作品製作에 잇서서의助力者인것만은 틀림업는일이다 왜냐하면 戲曲에

舞臺 의動作이 잇는 個所의 情緖가 당벽히 俳優의 表情에 리즘이칼한 色彩를 갓게하고 거긔完全한 藝術的形式을 附與하는것은 詩人의 天分이오 手腕인것이다

詩人은 옛날부터 俳優나演劇의 創作的助力者이엿든것과 가티 恒常 그러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見解는『리히알트、피히엘』의 가장 興味잇는 研究에依하야 證明되는것이다『피히엘』의『操人形의起源』이란 著書가운데는 다음과가치論述하엿다 卽『印度의戲曲은紀元前 六世紀의『카-리다-사』의 作品에 이르러 完全한 形態로서 出現한것이다 이 戲曲은 形式이란點에 잇서 印度戲曲의 歷史와 테크니크에 關한 解決의 關鍵을 갓고잇는것이다 梨俱吠陀의

讚歌 와 對話와 其他의 作品例를 들면『스파드노드하-야』와 가튼것은 오늘날 갓고잇는 形式으로는 가장 理解하기 困難한것이다 個個의 詩句의 脈絡한 가장 强力업고 一般的으로 理解하기어려운것이다 이詩句를 理解하려면『프라-마나』의 散文『베뎀』의、註釋이 오는 페이지에 各其 다른境遇에서보는 綜合된 맥스트가 必要한것이다

『마하-바-라타』와『프라-나』와가튼 그後의 作品은 때때로 各種形式의 完全한이야기를 內容으로 하는것이다『번데큐』는 愛蘭文學에 잇서나 이와類似한境遇에 對하야 다음과가튼 結論을 나리고잇다

다못原書의 詩句는 不變하고 이야기의作者가 自己의 조하하는데서 그詩句를散文과 ……

散文 에依하야 綜合發展잇다고 이 觀點은 嚴然히 正當하다 그것은 叙事詩 朗吟者의 特徵的인 말그러는 이카-(敍事詩)에 依하야서도 敍說되는것이다 詩句를 結合한 散文과 그詩句의 朗吟者의 能力에 맛게지는것이다 이와가튼 境遇가 印度戲曲인것이다

印度의 古典戲曲은 그 散文이 ……

藝術 을 行動 할수잇다 우리들의 생각을 證明식힐만한 일을하고잇다고하면 一方 다음과 가튼것에對한 嚴然한態度도 잇는것이다 俳優自身이 素本을 만들고 그脚本은 具體化하는데 必要로한 台辭를 創作할과가튼 演劇이 旺盛할때는 情緖의 가장興奮된것이 바래질때는 그台辭를 詩의形式으로 꾸미는 詩人이 俳優의옆에서 恒常助力者로서서고 잇게될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俳優들에依하야 創作된 劇詩作品의『統一』에、조고마한 破壞도 식히지안는것이다。

反對로 俳優가 그巧妙한演技를 잃어버리지 안는限 詩人의助力은 새로운美와 리즈미칼한 臺辭의 巧妙한것은 俳優의 演技에

豐富 히 할수가잇는것이다 『감마、테아텔』에 잇서서는 現在의 演劇的作品의 積極的製法의 境遇 詩人을如此한 共作의 일에 끄러너는 試給이 行하고잇다 그리고 只今 씨-즌에잇서서도 모-든 創作的인일에잇서서 權威잇는 唯一의 審判者는 演劇的意圖에 必要한 文學的素材의 發見 計畫한 演技의 性質에 適當하게 改作하는것들은 ……

그때문에 第二의 모-맨드로써-는 演出의 創作過程에 잇서서 舞臺監督의손에 依하야 着手되는 表示되는것이다(完)

(文壇포스트) 文人이여! 發奮하라

廣州 雨村生

朝鮮文壇의 沈滯低迷、頹廢는 社會的으로 論議되지오래된 問題나 아직도 그衰退에서 蘇生되는 氣分을 차저볼수업고 依然히 不振狀態를 繼續하면서 新年을 마지하엿다 創作界는 量的으로나 質的으로나 極度의 退步를 보히며 評論界는 단한個의 月評갓흔 것조차 어더볼수업슬만큼 全面的으로 崩壞되고마릿다 詩壇이나 戲曲갓흔것은 더말할 餘地조차업다 大體이 責任이 어듸잇는가? 그야 客觀的으로 不利한 情勢에잇는 朝鮮社會全般에 影響됨이라고하겟스나 나는 그보담도 朝鮮文壇을 構成하고잇는 文人들의 誠意와 努力欠如에잇다고본다 大膽하게朝鮮에 百으로 넘는『文人』이라는『가다가끼』를가진 분들은 무얼하고잇는셈인가 小說한篇 詩한首쓰지도안코『文士』라는 일홈만 維持하려드는가?

文人이여 좀더 發奮하라! 不利한 逆境속에서 受難을 突破하며 精進하는데서만 偉大한 藝術과 참된作品이 생길수 잇는것이 아닌가? 必死的인 努力이 잇서야만 沈滯된文壇의 更生과 向上發展이 잇슬것이 아닌가? 좀더 發奮하라 (完)

創作戲曲 당나귀 (全一幕)

【1】……柳 致 眞

時 十餘年前 어느 바람부는 겨울 저녁。

所 서울서 얼지안흔 외딴 山谷。

人 秋庵(老病人) 그의 젊은妾 妾老人(秋庵의 親舊) 洞里의 머슴 老婆(머슴의 아스머니)

舞臺 零落한 兩班 秋庵의 은거하는 산집 아담한 別庵。中間에 칸이 질녀서 서로접한두房。兩房사이에 房문 박그로 通한 대문은 右便房엽에 잇고 各房의 適當한 곳에 등잔等잇슴。

幕이 열니면 左便房에는 秋庵의 妾 반주고리를 아페두고 홀로 안젓다。空間을 하염업시바라보고잇다가 조용이 눈물씻는다。

右便房에는 病든秋庵 누엇고 그 여페서 그 親舊인 妾老人(쪽빠저서는 긧한 老人)이 이야기冊을 읽어 들리고잇다。 박게서는 지독한 바람소리 들린다。——참혹한 겨울밤이다

秋庵 (조금 사닉한 성질。甚한 기침을하며 목구멍에서 갈강거리는 소리로겨우)……이러케——기침이나고서야 살수가——잇나……

老人 (冊을 노코 秋庵을 붓드러준다)……이사람 추암……춤이려 안저보게。응? 누어만 잇스니깐터 가슴이 답답해지는가보이。(이르키려한다)

秋庵 ……고개를 내-고개를좀 붓드러주게 이사람……

老人 (추암을 붓드러 일으키며) 이사람 (한동안 안젓다가) 왜 이러케 바람소리가 지독해?……아마무슨줄 한이 또잇슴당가보이 전에도 날세가 이랫지?……

老人 뭐 우리가 걱정할것은 아니네 바로 통하란이 일어날려는 면칠 지안나? 겨울날세가 험악할수록 봄농사가 잘된다구——

秋庵 시절이 잘들면 무슨소용이 잇서。논마지기 나가지고 세상일에 관심을 하고 살든 때에는 나도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시절걱정 정도햇섯지。그러치만은 이제 세상이 뒤바끼고 내가 이런몸이 되서 산중에 들어백히고 보니 시절이야 잘들건 못들건 세상이야 외로 돌건 꺼구로 돌건 내게는 아모상관 업는일이되고 마럿서。……아모상관업서——

老人 세상일두 세상일이지만은 자네 집안일두 큰일이야。참말 즘 아니거든-허구헌날 이래가지구 대관절 엇더케 산단말이야? 그러지말구 자네 작은집허구 화해를 하게。내외싸홈이란 녯날부터 칼로 물비기라니 그까짓일로 가지구 서루 한집안에서 이게무어야? 이러케 각 딴방사리를 해야 맛인가? 터구나 이 외딴 산골자군이에서——

秋庵 (겨우숨을 돌나가지고) 무얼 편찬어。……그래두 이세상엔 외로와 죽어가는 사람은 업스니깐 가다오다 자네나 좀 들려와주게。그러면 그저 편찬어

老人 외로운것은 둘재치드래두 첫재 이래서야 몸은 나히에 하로가 불편해서 엇지 산단말인가? 혹시 엽방에서 냥하나툼 가질러가두 작 남에집에 어드러가는거나 다름이업데그려。

秋庵 무업 이런짓도 며칠안가서 결말이 날걸……난 쉬 죽을테니깐……。이병으로 엇지 오래 살기를 바랜담 엇지 바랜담……

老人 (舍笑를 지우며) 그리 쉽게 끗장이 날거라구 벌서 十年이나 끌어온병이 자네 그병은 마치 추근주근한 빗쟁이모냥으로 자비를 어듸까지 끄울고 단일는지 모르지 늙은이병이란 모두 그래 여버리는것쯤이야 어려울일은 안임세。이세상에 그중 어려운일이 잇다면 그것은 산다는거 그것뿐이야——산다는것밧게는 어려운것은 업서。

老人 아니그럼 우리는 못사려물꺼란말인가? 아냥 우리두 사려야하비。모두가 살고볼일이야。살고나서 결말을 임어야……허니깐 자네두 자네 소실하고는 하로밧비 화해를 하란말야

秋庵 화해? 인제 틀렷네! 틀렷서! (엽방을 가르키며) 저것과 나사이에는 넘을수업는 노픈 담이 가루차여 잇는걸……이번 싸홈에 나는 그것을 아럿서。

老人 넘을수 업는 담이라니?

秋庵 생각해보게。저것의 나희는 서른인데 내나희는 몃친가? 예순한살일세。——서른살과 예순한살……

老人 그게 엇쨋단말인가?

秋庵 그나히 상관이서로를가로막는 담이란말일세。저것이 생각는 세상과 내가생각는 세상은、그 담때문에 가루막혀 잇서。지금나는 죽을길을 넘어다보고잇는데 저것은——저것은 무엇을 생각하고、잇슬까? 엇떠케사려야 할가를 생각하구잇슬껄세……죽는것과 사는것……(외롭께 우스며) 허허! 거긔에는 큰상치가 잇지 안흔가? 큰상치가?

結婚과 小說의 因緣

最近英國에는 結婚이 小說팔리는데 커-다란 도움이되엿다는 이약이가잇다 그것은 T S엘리오트(一八八八年-)가 쓴『마리-나』라는 詩팔프레트가『마리-나』…… 殿下와『마리-나』公와의 御婚儀가 發表된뒤에 急작스리 그것이만히팔리게되엇다고 評判이놉다 그런데그와가튼 現象이 RD『부락크모어』의『로-나도-네』라는 小說에對해서도그러한 일이 일어낫다고한다 그것은 出版以來 …… 팔리지안허 出版社와 作者는 …… 하고잇섯는데 …… 御婚約이 發表되자 俄然히팔리기始作하며 宏壯한部數가 살시간에 賣盡되엇다한다 이 小說은 長篇의 이름과 조금類似하엿는데 그小說이암아도 …… 무슨로-만스와 關聯이나 잇는듯이 …… 하엿는지 그러케 宏壯한部數가 나아갓다한다 이러한 곳에도 讀書界의 好奇心이 잇는것은 滋味잇는現象이다 …… 아-모의 關聯이든 …… 팔리는것을볼때 …… 우리 讀書界에서는 볼수업는現象이 더욱이다가운것이다

(寫眞은『마리-나』라는小說로 一躍問題가된 T・S・엘리오트氏)

오늘의智識 醫學上에 나타난 肥胖、瘦瘠의自由 (上)

城大醫學部病理學敎室 李在暻

最天이 繼續하면 …… 旱魃이 繼續하면 降雨를 希望한다。똑가튼 意味에서 여원者는 살이찌기를바라며、살찐者는 反對로 살이내리기를 바라는 方法을 講究하고잇다。이것모도가 安住를 붉은는 人間의 慾望의 表現이고、不平과 不滿이 꼬칠줄을 모르는것이 人間相이 안인가、그래서 이가른 不平不滿을、善導함으로써 智의 進步와 發展이 잇는것이다、그러타하면 果然今日의 科學의 發達은 以上에 말슴드린바 여위고 살찐者에게 各各滿足을 줄수가 잇스냐 이런 質問은 往往듯는바인데 이에 對하야 吾人은『예스』또는『노-』이가른 斷定的對答을 할수는업다 이質問은 넘어도 槪念的이고、넘어도 無理가만흔 要求인까닭이다、그러함으로 이제부터 여위고 살찌는 原因을 말슴드린後 살찌는 法과 여위는 法이라는 階段을 밟고저한다、그러면 何故로 여위고 何故로 살이찌는고? 이것을 全然두가지 別問題와도 가티 生覺하고 잇는 者도 잇스나 그러나 決코 이는 別問題가 안이고 가튼問題의 表裏에 不過하다 結局人體全身의 營養狀態의

變調 인것이다 右便으로 기울면 살이 찌고 左便으로 기울면 여위며 左右어느便으로도 기울지 안코 平衡狀態를 保持하면 過度의살도찌지안코 넘어말으지도 안은 普通的體格이 되는것이다 말으고 살찌는 것이 結局營養問題라하면 一에 日攝取하는 食料問題이고 第二는 그것의 消化와 吸收問題 第三에는 吸收된 營養素의 體內利用問題 이 三大方角에서 이를 觀察하고 이를 議論할수 잇슬것이다 食料品으로는 牛肉과 魚肉갓흔蛋白質보다도 脂肪과 含水炭素갓흔것을 만히 攝取하면 그것이 살로 간다 살이찐다는것은 體內에 脂肪이 蓄積되는 事實을 意味함으로 攝取한것이 消化吸收되여 脂肪으로化하야 貯蓄될 白米大麥갓흔 澱粉質이나 또는 脂肪이 살로 간다 卽살이찌자면 澱粉質脂肪分을 만이 攝取하여야만한다 含水炭素를 만히 攝取하야도 살은 찌나 注意하지안으면 脂肪過多症이니 또는 脚氣갓흔病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럼으로 含水炭素를 攝取할境遇에는 恒常『비타민B』를 補給해야만한다 攝取한食料品도 消化치안코

吸收 되지안으면 大便의 分量만을 增加식히지 아모리조흔 食料品이라도 營養的價値는조금도 업는것이다

살이찌자면 營養價가 豐富한것을 攝取함이 勿論 必要하거니와 또한 食料品의 消化와 吸收狀態도 十分 注意해야만한다

植物性의 脂肪或은 滋養劑로는 肝油等이조흐며 여윈小兒에게는 菓子模樣으로되여잇는『肝油드롭스』等이 가장適當하다고밋는다 그러나 다만 一般的으로 所謂滋養製劑는 高價라는 非難을 밧고잇스나 營養價値上에서 論하면 非難을 밧을만치 비싼것은 안이다 어떤 滋養劑는 食慾增進에 不過함으로 그런것을 攝取하는것보다는 恒常食料品의 營養價를 生覺하야 이를 大量攝取하는것이 經濟的이다 이가튼 營養劑를 服用하야 萬一消化가 조치안으면 健胃劑、消化劑를 同時에 服用하시라 이 原理는 第三으로는 體內에 吸收된 營養素가 엇더한 方法으로 處分되나 이問題가 살찌고 여위는데 가장 重大한意義를 가지고 잇는대 吸收된 營養素가 全部 分解되야 消費되지안코 體內에 남아 蓄積되면 살이찐다 勿論營養素의 分解消耗에는 運動이 큰關係를 가지고 잇다 運動으로 하야

發生 하는『에네르기』는 體內物質의 燃燒分解現象임으로 拳鬪選手가 自己의 重量의 增加를 防止하고저『란닝』運動을 하고잇스니 이것은 過度의 脂肪을 燃燒식혀 버리고저 함이다。柔道選手가 對校試合前에 合宿하야 猛練習을 하면서 亦是 體重의 減少 卽 여위는 것이다 그러나 試合이 끗나고 心身을 좀 休養하면 또 體重의 增加가 잇다 肺結核患者가 絕對安靜을 하면 明確히 體重의 增加가 잇는대 이것도 한 物質處分에 重大한 關係를 가진 理由이다

肺結核、腸疾病後에 만히 되고잇다。또 精神狀態는 우리消化器分泌에 큰影響이 잇슴은 勿論이니라 吸收作用에도 關係가 크다 不安狀態에 잇는者에게는 往往消化吸收가 不能하야 …… 지체되는

事實 이 잇슴으로 이事實을 보더라도 安靜은 絕對로 必要하다 그러함으로 살이 찌자면 恒常心身을 愉快하게하고 근심不安을 버려야 한다 살이 넘어찌서 괴로운 지라는 別途로 여러가지 고 잇슴으로 조금말라보앗스면하는 者는 以上에 말슴드린 注意를 逆用하면조으며 消化吸收를 防止할것이다 下劑를 服用하는 者도 잇다 또는 硼酸物 이가튼것도 內服되고 잇다 그 作用은 食料品의 吸收를 防止함에 뿐만 안이라 體內에 잇는 脂肪分解를 促進식힘으로 少量을 內服식히면 一二週日內에 體重의 減少를 惹起한다 甲狀腺의 機能을 障害하는 弊害가 잇스니 이를 使用할 境遇에는 十分注意해야만한다

今春各學校入學案內

(詳細는當校에直接問議하시오)

官立京城師範學校 女子部(女子師範學校로分離될것)

▲募集人員 1 演習科 約百名(中官費生約四十名) 2 講習科 約五〇名(中官費生若干名 私費生若干名) 3 尋常科 約百名(中官費生約四十名)
修業年限 演習科 二年 講習科 一年 尋常科 四年
▲入學願書受付期日 三科共二月十日限 出身學校長에게 推薦해준것을 出願할것 推薦學校長의 道知事에게對한 推薦期日은 二月十五日限
▲試驗科目 演習科、講習科 國語(讀解、作文)數學(算術、代數)歷史(國史)理科(化學) 各學年에對하여 修業年限 高等女校卒業程度로施行함 尋常科 國語、算術、理科、國史、(修業年限六年 小學校 普校卒業程度로施行)

京城公立女子高等普通學校
▲募集人員 約百五十名 ▲試驗期日 自三月七日至三月十日 ▲試驗科目 同上 ▲試驗場所 同校

大邱公立女子高等普通學校
▲募集人員 約百名 ▲試驗期日 自三月二十一日至三月二十三日 ▲試驗科目 同上 ▲試驗場所 同校

平壤公立女子高等普通學校
▲募集人員 約百名 ▲試驗期日 自三月二十一日至三月二十四日 ▲試驗場所 同校

全州公立女子高等普通學校
▲募集人員 約五十名 ▲試驗期日 自三月二十三日至三月二十四日 ▲試驗科目 同上 ▲試驗場所 同校

光州公立女子普通學校
▲募集人員 約五十名 ▲試驗期日 三月十一日十二日 ▲試驗科目 同上 ▲試驗場所 同校

釜山公立女子高等普通學校
▲募集人員 約五十名 ▲試驗期日 自三月二十二日至三月二十四日 ▲試驗科目 同上 ▲試驗場所 同校

海州女子高等普通學校
▲募集人員 約五十名 ▲試驗期日 自三月十五日至三月十六日 ▲試驗科目 同上 ▲試驗場所 同校

京城保育學校
▲募集人員 本科四十名 選科若干名 ▲出願手續期日 三月二十一日限 ▲試驗科目 國語 地歷 朝漢、音樂 ▲試驗日字 四月一日 二日 ▲試驗場所 同校

咸興水利組合의 水源問題遂解決

長津水電의 放水를 利用코저 八萬圓으로 工事着手

【咸興】 함흥수리조합에서는 종래 장진수전회사(長津水電會社)저수지의 방수로인하야 관개구역 이백여정보의 관개를 하여오든바 동장진수전회사의 방수로는 도저히 충분치못하야 해마다 농민들의 불평이 놉흠으로 이번장진강수전회사 저수지로부터 흑림강(黑林江)에 방수되는 다량의물을 하기천경흥리(下岐川慶興里)에 취입구를 설치하여 관개 하리라는데 공사는 금년오월부터 팔만원예산으로 개시하기로 결정되엿다한다

懸案인 鏡城電氣 六月에는 點燈

【鏡城】 귀성읍내에 전등을 가설코저 귀성면에서는 작년부터 각방면으로 운동중이든바 신의주전기주식회사에서 송전하기로 결정되여오는 륙월상순에는 어김업시 송전한다는 통지가 이신상업부로 귀성면에 도착되엿다한다

釜山記者團(一行十七名) 災地實況視察

廿七日午後一時金海着 救濟事業復舊工事等現狀을調査

【金海】 작년미증유의대홍수를지내ㄴ후 각지 재민들에게 도당국에서 빈민구제사업을 하고잇는바 구제사업이 얼마나철저히 진행하며 또는복구공사도 얼마나한 정도에달하엿는지 실지시찰키위하야 부산부내에잇는 각신문지국기자로 조직된기자단 대표십칠명 일단이지난이십칠일 오후일시경 김해에도착하야 김해군수급경찰서장의 인도로 재지중에도 제일참상을 보인동군대저면 덕두리하천복구 공사장(大渚面德斗里河川復舊工事場)을실지조사한후 동일오후 륙시반에귀부하엿다한다

救濟不徹底를 記者團에哀訴

별항보도=부산시칠신문지국기자와김해본보지국기자급 매일신보,부산일보기자일행이대저면에 도착한바 놀라지아니할수업는것은 하천복구공사장과 개인공사장이 잇스나 일전 삼사명이나되면 로약(老弱)만잇고 로동할만한장년이 업는호수가대저면내에 사백칠십삼호에 이천일백삼십사명이나되는데 그들의사라오는상황은 초근목피로 연명하다가 지금은벌서 초근목피도 삼일간이나 어더먹지못하고 부황징이나서 죽게된사람만이 사백여명에달하는데 당국자의구제방침이압흐로더욱철저하고 공철저한것을일반사회에서일만하게 신문사여러분도압흐로 더욱더욱 실지에부합된것을 보도하야 주기를 간절히바란다고 당지유지일동은 말하엿다

公普校授業料 徵收規定變更

【長湍】 경긔도 장단군에서는 일반농촌경제가 날로피폐하야 각공보교생도들이 중도에서 퇴학하는자가속출하야 초등교육상 지장이불소함으로 이를방지할 방침으로 수업료를 매년점차감하고저 금번에 개정하엿는데 그개정된중요부분은 사년이하 종래육십전이든것을 오십전으로하고 오학년은종래와가티 륙십전으로하고 종래방학중에는 반액을 징수하든것을전액으로 징수하고 한집에서형제가통학하는시는 한아동에게는 반액을징수하얏스나 지난 십일월부터는 전액을 징수하기로 되엿다고한다

海州高普校內 氷上競技經過

【海州】 해주고등보통학교(海州高普)주최의제삼회 빙상경기대회(氷上競技)는 예정과가티 지난 이십륙일오전 십시부터 시외선산 수리조합 저수지(仙山水利貯水池)에서 개최되여 동일오후삼시경 무사히 폐회하엿는데 당일중요한 성적은 다음과갓다

▲五百米 崔種七(五年)五十六秒 ▲千米 崔永(三年)二分十秒八 ▲五千米 鄭贊永(四年)十一分十五秒八 ▲一萬米 崔順七(五年)二十二分三十一秒五 ▲千五百米 尹泰圭(四年)三分十五秒一 ▲二千米ABCD對抗리레―D組四分二秒

天道臨時大會

【元山】 천도교청년당원산지부에서는지난 이십칠일오후한시부터 동지부 회관에서 김형준(金亨俊)씨사회로림시대회를개최하고 당면정리의건 「수도급료면제에관한 건」등을토의한후 동이시반에무사폐회하얏다고한다 ◇執行委員=高亨俊, 徐成均, 鄭東明, 金寶熙, 吳昌錫, 金載鎭, 玄永健(以上委員) ◇檢察委員=李鍾完

德源公民學校에 二千七百圓喜捨

德源洪淳瓚氏壯擧

【元山】 덕원군적전면송하리(德源郡赤田面松下里) 홍순찬(洪淳瓚)씨는 덕원공업보습학교의 후신으로 작년사월일부터 개교한 덕원공민학교(德源公民學校)에 동교의 대지와 건물부속품 시가이천칠백원을 지난십이일에 희사하엿는데 일반은동씨의 미거를칭송하기마지안는다고한다

鏡城少年軍의 創立記念盛況

【鏡城】 조선소년군제십호대귀성분부의 창립만일주년기념일이 지난이십오일인바 당일 오후한시부터 각관공서장급지방유지며 멀리방현소년군의 참석하에 주악으로개회한후 강령단가와 식사가잇슨후 총본부향후 배창화(이전대장)씨기타 수종의축전과 축문낭독하고 래빈의의미심장한 축사가잇슨뒤에 성황으로폐회하엿고 밤오후칠시부터는 당지 천도교당에서 소년들의 재롱스럽고 씩씩한노름인창가, 가극등수십종의 여흥으로만장의 갈채를밧고 성대한축하회를마추엇다한다

池島淵君出監

【新上】 제일차정평농민조합(定平農組)사건에 관련되여 경성복심법원에서 이년반의 체형언도를밧고이래 함흥형무소에서 복역중이든지창연(池昌淵)군은지난이십팔일만기출옥되엿다한다

素沙家畜市場 成績이頗良好

【富川】 오래전부터현안중에잇든 소사 가축시장(素沙家畜市場)은 마츰내 실현을 보게되여지난이십일에 제일회로 개장되엿든바 원근각지에서 운집한 농우가무려천여두로 당일에 매매된수도백여건에달하야 량호한 성적을나타내엿다고한다

義州培新校長 十週記念盛況

【義州】 의주군수진면수구동 배신학교(培新學校)에서는 지난이십이일오후한시에 동교강당에서 교장김경안(金景安)씨의 십주년 근속기념식을 성대히거행하엿다한다

貧困證明주시요

自殺未遂의男便救코저 彼女의눈물어린呼訴

【平壤】 비참한인생의축도가대동군서천면이동리(大同郡西川面二里) 박녀(朴女)는 이십팔일 대동서를찾아와 빈곤증명서를 달라고애원함으로 경찰서에서는 리유를물으니 남편리용근(李用根)은수일전 양잿물을 만히 마시고자살을 도모하다가 모진목숨이끈허지지안허 고민중임으로 병원에입원이나시켜볼가한다고 대답하엿다 대동서원은 박녀의진술차저 사실을 조사햇든바 리용근은생명이경각에 달리어잇섯슴으로 도립의원시료부에 입원식혀 치료중이나 생명이 위독하다고한다 자살하려든 리유를 들어보다면 리용근의 부부는 작년칠월까지보통강안에잇섯스나 홍수때문에집을 일코 남편은 일개월전부터 몸이병마에걸리어 압흐로 생활을계속할수가업게되엿고 구력경과를 압두고 고생을심하여 죽엄으로 모든것을 이저버리고저 다량의 양잿물을 마시게된것이라한다

細窮民을同情 白米六石配給

【南原】 남원읍에거주하는세야원조(細野元助)씨는금번음력설에임박하야 남원읍내의 빈민에게 백미(白米)륙석을 난호어주엇다는바 일반은 씨의미거에대하야 칭송이자자하다고한다

米價調節로 貯租解除要望

【伊川】 근일 곡가가폭등하야 일반세농은 더욱참경에 빠지고잇는데 이를다소라도 완화하기위하야 강원도이천(伊川)지방주민은 이천군농회(伊川郡農會)에서 작년에 저장한 정조를해제하여 일반군민의 곤궁을 완화케하기를요망하고잇다 한다

舊年末을압두고 各地에物情騷然

二人組食刀强盜 五十餘圓을奪去

【平壤】 구년말을압두고평양부내에는 강도와절도가횡행하여 인심이 흉흉한이때 이십팔일오전네시 이십분경 부내 선교리(船橋里)사십오번지최이권(崔仁權)의집에 식도를휴대한 이인조강도가침입하여 주인과가족들을 식도로협박한후 현금오십칠원을 강탈도주하엿다 급보를접한 평양서에서는 비상선을느리고 범인을 엄탐중이나 아직잡지못하엿다한다

授業料未納者에 一齊差押斷行

定平郡當局의勇斷

【定平】 나날이농촌은피폐하여감으로 경제상고통이심한 이지음에 잇서서 더욱이구년말이 밧두하여옴으로 부채(負債)에쫏겨 갈팡질팡하는이때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수업료를 지불치못하야 그야말로 설상가상의격으로 더욱 떨고잇는 중 군당국에서는 지난이십륙일에 부내면 풍흥리(府內面豊興里)입의 수업료미납자 김정준(金吉貞)외에멧사람에게 차압을단행하엿다한다

三郡消費酒量 四十一萬餘圓

【鐵原】 철원세무소관내인철원평강이천군 삼군에서 소화구년도에 소비된 술의수량은 아래와갓다고한다

濁酒六六四八二石 價格二二九六四一圓

藥酒二三七一石 價格一〇六七二五圓

燒酒四〇七三石 價格一八三三一六圓으로 합계二一九六石 價格四一九,六七二圓이라고한다

七人組滿人强盜

同胞의金品强奪

【奉天】 지난이십오일오후다섯시경동릉(東陵)부근에칠인조만주인강도단이나타나 행인의 금품을강탈하든중 맛츰무순(撫順)서소를팔아가지고오든김순화(金順化)의소지금구원을 강탈하고 기타삼인의동포의금품도 강탈하고도주하엿다한다

威化面上端洞에 棍棒强盜出現

【新義州】 이십칠일오전한시경의주군위화면상단동(義州郡威化面上端洞)김천년(金千年)방에 곤봉(棍棒)을든만주인(滿洲人) 강도 네명이침입하여 전긔주인을결박하고 곤봉으로 구타한후일원 십전을 강탈하여가지고 안동현(安東縣)방면으로도주하엿다는데 동리리시홍(李時弘)방에도 침입하여 괘종시계(柱時計)(時價三圓)를전긔와갓흔수단으로강탈하엿다한다

金載學氏特志

【南海】 경남남해군 남면덕월리 김재학(金載學)씨는 남면빈민 팔백호 오십세 이상되는로인들에게 희연두봉 백미두되(囍烟二封,白米二升)식을 세찬으로 배급하얏다는바 씨는작년십이월경에도 빈민의호세 사십여원분을 대납하야준일이잇서서 일반의칭송이자자하다고한다

三新聞支局主催 窮民同情書畵會

來二日南浦公會堂서

【鎭南浦】 진남포조선중앙동아조선세신문지국 련합주최로 회백권구현(檜伯權九玄)씨의 래남을기회로 궁민 동정서화대회(窮民同情書畵大會)를오는 이월이일 오후세시부터 진남포공회당에서 개최하게되엿는데 동화백은 고해강김규진(故海岡金圭鎭)선생문하에서 다년간 수학하엿고 동경양화학교(洋畵學校)를 우수한성적 으로졸업한후 태평양미술전람회를 비롯하여조선 미전에서도 칠회나입선되엿든분이만큼 금번대회는 발서부터인긔가비등하다고한다

密輸의國境 (十)

國境넘은生阿片 一年二千七百餘貫

滿洲國의吸飮制限도紙上空文 密輸品이潮水와갓치드드간다

國境에서 活海生記

阿片을密輸하면 利益은엇더한가

그러면, 아편을밀수하는 때리익은 엇떠한가하면 아편은 금괴보다도리익이 훨신더만타 세번밀수출에한번들키드래도 리익이된다고 하는 터인즉 그리익의막대함을상상할수가잇다 그런데 그시세는 법금물(法禁物)이되는까닭에 은밀한곳에서 가만이 매매를 하게됨으로 때와 곳에따라 갓지안으나 대개 조사한바에의하면 원산지(原産地)에서 생아편(生阿片)한관에 칠십원내지백원가량이 시세인데 이것이안동으로 건너가게되면 최저이백원으로부터 사백원 엇던때는오백원이상으로 매매되는때도잇다 더욱이조선서나온아편은품질이조타하야 만주산아편보다 이삼할가량 놉흔갑스로 매매가된다

新義警察의 阿片押收量

안동에밀수되는 아편은 대개신의주를 통과하게됨으로 신의주경찰이 잇는한 이를발각검거코저함은 말할것도업는일이나 작년일년중 신의주경찰에서 몰수한아편은 륙십관 내외에불과하고검거건수도 상십건에 불과하는터인즉 전긔밀수총량에 비교하면실로 사십분의일도 못되는형편이다 이로보면 밀수단의 밀수방법이얼마나교묘한것을 알수잇다

阿片의密送方法 「리레」式으로轉送

신의주를 통과하야 밀수출하는아편은 그원산지(原産地)가 대개함경북도인데 밀수단은 이곳서아편을사가지고 팔기는 안동현에잇는 네집가량의 조선사람중개인의 손을 것처 만주인에게 파는것이다 그운송방법은 금괴와가티 원산지로부터 일단 신의주로보내고 신의주로부터 다시안동으로넘겨가는것이 순서인데 대량으로운송을할경우에는 원산지에서

주매인(仲買人)이 각경작자를 방문하고 아편을모아 각전은 주머니에 경작인의성명을 암호로긔록하야 거기에아편을넣코 아편내음새를 업시하기위하야 신문지나 짚(藁)과가튼것으로 둘너싼후 상자에넛는다 그상자에는 표면에 고무구두나「지까다비」가튼것을넣어 표면잡화물품을 운반하는것가티 포장(包裝)하야 운송점 흥은 역지(驛止)로 탁송하는데 련락자는 이것을바다가지고 감시원의틈을보아 안동으로 건너가는것이다 그런데이것도 금괴와가티 경성 평양등 큰정거장에 각각

련락자를두고 중간련락자가 일단 그짐을인수하얏다가 다시포장도하야 그형형색색의 교묘한방법은 이루다 들수가업다

또소량인경우에는 신의주까지 가저오는 방법과가티 엷게 떠서 허리나 다리에 감고 건너가는것이 보통이오 또면포와가티면 포를 수출하는것가티 꿈이는일도 만다 ◇

◇阿片專門運搬業者

이리하야 신의주까지 가저온아편을다시 안동현으로 운반하는방법은 대량의경우에는 일종련락이잇는 면포밀수자로 변장한아편전문운반자(阿片專門運搬者)에게맛기는 것이다 이아편전문 운반업자는 면포밀수도 하지만은 전연이것을 전문으로 운반하야주고리익을 엇는 특종의직업이다 운반방법은면포에감추는외에자전거 인력거도리용하고 때로

대개 밀수출품은 금괴든지 아편이든지 신의주로부터 안동현까지 건너가는것이 난관이오 안동시내에 드러만 가게되면 각각 연비가 잇서 용이하게 방매되는것이다 특히 부속지(附屬地)에는 만주국의손이 밋지못함으로 아편과가튼것은 공공연하게 매매되는일도잇다고한다 이로서 아편밀수에 관한 이야기는 대략맛치엇슴으로 다음은제일 성황으로 또는「경」식으로 행하여지는 직물류(織物類)밀수에 관한 이야기를하고저한다 (계속)

火賊林巨正 (74)

洪碧初 作　安碩柱 畵

청석골 四의二四

이튿날 식전에 꺽정이가 로밤이를 보내서 한온이를 청하야왓다 전가트면 오라고일부러 청하지안허도 한온이가 의례껏 꺽정이를 보러왓겟지만 꺽정이가 일상 새집에가서 자게된뒤로는 진이칠때전에는 오지아니하는까닭에 날직만나라면 보러가거나 청하야오는수밧게업섯다 한온이와 로밤이가 마당에 들어올때 꺽정이는 방에서 마주나와서 로밤이는 박갓사랑으로 내보내고 한온이를 다리고 건ㄴ방으로들어왓다 꺽정이가 전날밤이야기를 시작하기전에 한온이는 먼저

「밤이에게 지금 대강이야기를 드럿습니다」

하고 말하얏다

「벌서 들엇나 그러면 이애기는할것 업구 뒷일조처나 좀 의론해보세」

「원판서가 말을 너무 찻지안을까요 차지려든다면 일이 크게벌어질것 갓습니다」

「찻는단 소문이잇거든 자네가 요전때처럼 어듸가서 잘감겨주게」

「요전벌가티 또 장가를 드시렵니까」

「나는지금 합이를 내주어볼까 생각하는데 엇더켓나」

「어제밤에 데리고주무시기까지 헷다지요 낭반의집 딸이 이사람 저사람에게 몸을 맛기겟습니까 만일자존심이 강하다면 죽네사네 야료나 나지요」

「밤이란놈이 낭반의 서울을 데려온 뒤부터 기집하나 어더달라구 졸른다는세」

「헌기집하나 어더주시지요」

「그럼 그건 나중 다시이애기할세 잡구 우선 저기집애를 어듸다 두어야 조켓나 밤이를 바갓사랑으루 내보내구 이방에 둘까」

「아직은 이방에 두어두 조켓지만 처음부터 아주재첩의집 뒤방가튼 은은한데 데려다두면 엇더켓습니까」

「그게 조켓네 그런데 오중불가집이 알면 원수갑는다구 날뛰지안올까」

「그건 제가 담당할테니 념려마십시요 밤이의 입만 막어노면 그기집이 알까닭두업습니다」

「그놈의 입이 사구 웜생인데 잘막힐까 몰으겟네」

「그기집에게 알리면 처챙을당할테니 그리 알라구 얼르구 또 조은기집이나 하나어더줄테니 말을 입바게 내지말라구 달래노면 그기집이 설혹 달은데서 알구와서 뭇드래도 그놈이 능청맛게 잘 속여넘길겝니다」

「그것두 자네가 맛게」

「얼르는건 선생님께서 얼르서야 됩니다」

꺽정이가 또 무슨말을 하라고할즈음에 안방에서 괴상스런 운소리가 낫다 꺽정이와 한온이가 안방에서 건너와보니 기집아이가 수건으로 다락문고리에 목을매고 킥킥하얏다 꺽정이는 한온이를 돌아보며 한번 웃고 기집아이를 와서 끌러노핫다 기집아이가 어설피 목을 매엇다가 죽지도못하고 죽을의사가잇는것만 들키어서 한온이의 첩의집으로옴겨온뒤 늙은녀편네 두엇이밤낫 여풀 떠나지 아니하얏다 수일동안은 기집아이가 물한목음 입에 너치안코 울곳두어서 울기만하다가

「사람의팔자란 억지루못하는게요」

「꼿가튼나이에 왜 죽는단말이요」

「부모두몰으게 죽으면 원통지안소」

「부모를 다시만나볼라면 살어야하우」

이런말로 늙은녀편네들이 달래는데 기집아이 소견에 죽더라도 한번 부모를 만나보고죽을생각이 들게되어서 권하는 미음을 차차로 나우바더먹엇다 원판서 집에서는 죽가전 딸이 상직할미와 가치자다가 하루밤사이에 돌이가치 급사하얏다고 상직할미는 시체와 장비를 자식들 내주어서 초상을치르게하고 그집딸은 원판서내외가 손수 수시하야 당일로 입관하고 오일만에 갈장(渴葬)하얏다 원판서집소식을 한온이가 알어다가 꺽정이에게 이야기하고

「일이 의외루 무사하게 잘됏습니다 인제 선생님께서 처자를 들어내노쿠 데리구사서두 아무탈이업겟습니다 원판서의딸은 죽구 처자는 살엇스니 누가 처자를 원판서의 딸이라구하겟습니까 낭반의집에서 원체 남의목수습을잘하지만 이러케까지 심한줄은 몰랏습니다 하여튼지 일이무사하게 돼서 조습니다」

하고 우스니 꺽정이도 허허허 너털웃음을 우섯다

開業 (和)

紀念特價大賣出

一月二十六日부터 二月三日까지

和信仁川連鎖店

營業目錄
綢緞布木部 洋品部 化粧品部 旅行具部 手藝品部
文房具部 食料品部 玩具部 沙器漆器部

仁川府內里二百番地

店主 金弼濟

趙錦子第二回吹込
流行歌 울음을 한이업네
待望의名曲出來!!
콜럼비아레코―드
Columbia

一月廿八日부터映畵週間
突然二大映畵公開 晝夜二回興行 日曜祭日祝日一日三回興行
松竹키네마社超特作品 現代名篇 想思만흔女子 全十卷 (想出多き女)
栗島すみ子, 川崎弘子, 江川宇禮雄, 若水絹子, 齋藤達雄, 藤野秀夫 共演
米國콜럼비아超特作品 名篇 奇蹟의處女 全十卷
主演 바―바라스탠웍의그웬 뒤벗트마라니―스氏
눈물만흔것은人間이라아잇나사랑가지각색이다못노라人生은웃지팔가만흔가요?
階上 大人三十錢 小人二十錢 階下 大人二十錢 小人十錢
電光三六 朝鮮劇場

一月二十八日부터大公開 料金階上十五錢階下十錢均一
◇와너社特作映畵 探偵劇 第十三番 全七卷 監督ㅣ제스러워제이氏 主演ㅣ젠보이드만氏
◇大都映畵社超特作時代劇 木曾路의流星 全八卷 監督ㅣ中島寶三氏 主演ㅣ桂章太郎
R·K·O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腹折腹折 喜活劇 頓珍外交
監督ㅣ윌리암사이타氏 제네바行 全八卷 主演ㅣ로비드워라氏
麻浦桃花洞 電話一三三 桃花劇場

一月卅日부터二日까지 夜間에만上演
新舞臺春期公演最終週 階上六十錢四十錢 階下四十錢三十錢
◆朴英鎬作 木花 全二幕
◆金陵人快作 故鄕 全一幕 (一名江村의悲歌)
◆幕間獨唱
晝間映畵 午後二時부터 階上三十錢 階下二十錢均一
◆RKO特作日本版 地方檢事
◆RKO特作日本版 스포츠파레―드
◆東活特作 大學의수리後篇 羽衣天女 二卷
舊正月一日부터每日三回 午前十一時 午後三時 七時始映 階上七十錢五十錢 階下五十錢三十錢
◆파社大作日本版 絢爛한超人最後의一人까지 第二週(九日부터)
크리스티나女王 第三週(十四日부터)
全鮮映畵第一 電光二八二 團成社

一月二十九日부터
파社超特作發聲全發聲日本版 랄프마프이氏監督作品! 冷藏庫의秘密
熱血리차ㅣ드아ㅣ랜氏主演
男女老幼를勿論하고 歡喜에뛰는 祭祀날밤의火手가손을드리猛獸가 뛰여나다한사람의어머니가미친듯 이어린아들의일흠을부르든 의暴風로맨스
大都映畵社超特作映畵 大作龍三監督作品! 時代劇 鐵假面 主演 桂章太郎 助演 東龍子
ユ社特別大提供 爆烈鬪爭 主演 후―드깁슨氏
天下名物사ㅣㄴ人形의宣傳週間임으로
料金 階上三十錢二十錢 階下二十錢十錢
黃金町 電光二九五 優美館

戯然!四騎出頭のニコニコ大會 大英斷・階下三十錢均一
二十四日ヨリ三十日迄特別大公開
市川右太衛門プロ超力作時代劇 原作脚色・志波西果・監督稻葉蛉兒
谷崎十郞特別主演 武井龍三 歌川絹枝共演 幽靈刀 全八卷
R・K・Oラヂオ超特作發聲日本版 ロバート・ウイルゼイ バー・ホイラー 主演 二人組 メリケン萬歲 全八卷
奇想天外の自動車競爭をバックに織りなす戀とスピードの爆笑連發
P・O・Lオル・トーキー 淺草の名物男エノケン第二回大熱演 監督木村莊十二 快心の超特作
エノケンの魔術師 全九卷
榎本健一主演 藤原釜足 千葉早智子 二村定一 竹久千恵子 共演
櫻井町 本局二二七

朝鮮日報 京城販賣所 電光二四九番

産繭處理統制案 (二)

農林省發表內容

關係業者의影響

(一) 養蠶者及製絲業者에及할影響

가、養蠶者는産繭의處理를確保할수잇다。『近來蠶絲業의景況不況에因하야、蠶絲關係者의疲弊는 顯著케되고 그結果養蠶者의産繭의 處理를不安케하며延하야不自然한 繭價의暴落을誘致하는中이現狀인데 本施設完成時에는 産繭處理方法이 確立됨으로此等의 不安을除去되어養蠶經營의 安定에資할바 甚大하다』

나、繭의處理는 그實質을 本位로하는、合理的方法으로되어 養蠶、製絲兩業者間의 利益分配가公平케된다。

『從來의方法에서의生繭自由取引은勿論特約取引에잇서도 繭의實質鑑定이 不完全한때문에繭의價格은 반드시 그實質과一致하고또思惑에 依하야或은互場의優劣等에依하야 恒常不自然한旋落을 誘致하고 養蠶、製絲兩業者에對한 利益分配가公平히行치못하는 境遇가만햇스나本施設의 實施에依하야此等의弊害를 禁止할수가잇다』。

다、製絲業者는一時에多額의購繭資金을要치안는다。

『從來의方法에잇서는 生繭의自由取引이 만히行하얏던 結果 製絲業者는限定된 繭生産時期에잇서 一個年의所要原料를購入할必要上一時에 多額의購繭資金을要하얏스나 本施設의實施에依하야 乾繭取引이普及되면 製絲業者는一個年을通하야 必要에應하야隨時所要原料를購入할수가잇슴으로 一時에多額의購繭資金을要치안케되어 金融上의負擔이輕減될것이다』

라、製絲業의經營合理化를促進한다

『從來의繭生産時期에잇서 短期間의取引으로는 그取引時期의 一個年의原料를 購入함으로 製絲事業에는 恒常危險性이만코 製絲業者는 恒常思惑에依하야 事業을 經營하기때문에 自然그經營은不堅實하게되는 傾向이잇섯스나本施設의 實施에依하야 繭處理가 合理化되고 思惑을除去하야 堅實한事業經營을 할수가잇다。또養蠶者에게 投機의弊害를 轉嫁하는것이라고보는者잇스나 乾繭의平均價等에 依하야 이것을避하고 참아리確實한 産繭處理가된다』

마、養蠶業及製絲業의 改善을 促進한다。

『繭의取引이 實質本位로되어 繭質의 巧拙이兩業者의 利害에影響되는바 적게됨으로養蠶者는 一層그經營을 改善하고 品質의改良과 生産費의低減을圖하야 그利益을增進할에努力케되고 또、絲業者는器械又는工場經營의改善에依하야 그能率을올니어利益의增大를圖코저하는結果 兩者의改善增進이一層促進되다』

(二) 繭取扱業者及仲立業者에게及하는影響

가、繭取扱業者의 業務에及할影響은적다。

『從來繭取扱業者가 店舖以外의場所에서 取扱할生繭은大部分屑繭、玉繭等으로서 上繭의取扱數量은 그리만치안타 卽上繭取扱數量은 昭和八年의 實情에依하야 이것을推定하면 上繭産額의約八%이다。그리고 本施設의 實施에잇서도 屑繭、玉繭은勿論上繭이라도 地方事情其他特別한 事由가잇슬時는命令으로써 이것을 除外케됨으로此等業者의 業務에는그影響하는바가僅少하다』

나、現在의店舖를有한繭取扱業者及繭問屋은 乾繭에對한 有利한營業을 繼續할수가잇다。

『現在店舖를有한 繭取扱業者及繭問屋이 그店舖에서取扱하는 生繭의數量은 最近漸次減少되어 昭和八年에잇서는 上繭産額의七·八%에 不過하다。그리고此等業者는 거의 自己가 乾繭設備를 가지고 잇슴으로 本施設實施後에는 繭의 乾燥業으로 轉業할수가 잇것고 設備가업는者라도 乾繭의賣買者로 轉業할수가잇다』

다、生繭市場은 乾繭販賣組合又는乾繭業者或은 乾繭의賣買問屋業으로轉業할수가잇슴으로 影響함이적지안다。

『現在의生繭市場은 特約取引及乾繭取引의 普及에依하야漸次그機能이縮少되어 昭和八年의取扱數量은 上繭産額의一·六%에不過한 現狀이다。그리고 此等市場은 本施設實施後에는 그設備를利用하야 乾繭販賣組合으로되거나 또는 乾繭의販賣市場으로 轉換할수있다。其他特別한事由가잇슬時는命令...』

[illegible]

米穀自治管理統制 組合法令化를協議

昨日政務總監至急打電으로 審議室事務官昨夜急渡東

結局朝鮮側屈從?

昨報함과 가티 米穀自治管理案은 거의確定되야 다만 압흐로 議會의通過만 남어잇슬뿐이다 그런대 昨日(廿八)午前中 渡東한今井田政務總監으로 부터 朝鮮總督府에서 審議室岸事務官의急遽渡東하라는至急打電하엿슴으로 岸事務官은 곳 同日午後十時五分 京城驛發車로 渡東하엿는데 이것은 米穀自治管理案에伴하고 統制組合法令化에對한協議를 하라는때문이라고한다 이와가티 結局에는 自治管理案은 成文化하고 또는 이形勢대로 法文化까지 큰變化가업시 일흐게될것이 疑心할餘地가업게되엇다 딸허서 朝鮮總督府에서도 配定比率에對하야 그동안不滿 反對를 말하엿스나 何等의効果가업시 그案대로 統制組合新設其他에 손을 대이게되고말르는 모양이라고한다

過剩米統制組合 朝鮮內에는新設

産組와農會에代行케안하기로

百五十乃至二百組合

米穀自治的管理에伴하는 統制組合의組織에對하야 農林省에서準備를빨리하야 成案이되뒤閣議에서決定하여가지고 今議會에提出될터인데 이번에생길統制組合은 다음과가티 될것이라한다

日本內地에잇서는 統制組合의名目알에現在에잇는産業組合또農會에 統制事務를 代行케하고 以上兩機關이 업는곳에는 새로히 統制組合을 맨들기로될것인데 數個町村乃至數十個町村을 單位로統制를 圖케될 모양이다 朝鮮에 잇서는 農會、産業組合等에 代行케안하고 새로히 統制組合을 設置하야 大體 郡을 單位로하고 主要米産地만은 一郡에二個所或은 三個所의統制組合을 맨들게될것이라고한다 平北의山間、咸南北等의 産米가 적은곳은 同組合이 設置가안될郡도 잇슬모양임으로 大體百五十組合乃至 二百組合以下로될 모양이라고한다

"統制組合"을 朝鮮만設置"

道府縣農會에서提唱

【東京電話聯合】帝國農會에서는 二十八日 午前十時 丸之內農會事務所에 道府縣農會長會議를열고 農林省에서 荷見米穀局長、小濱農務局長、井野蠶絲局長、帝農에서 酒井會長以下 各農會長이 出席하고酒井會長의 人事가 잇슨뒤 井野蠶絲局長으로부터本議會에 提案할蠶絲對策과 米穀自治的管理法案에 對하야는 小濱農務局長으로부터 農産物中央販賣機關에 對하야 各各說明하고 各農會長으로부터諸種의 質問이잇섯는데 그要旨는 알에와갓다

農會가、米穀生産者인立場을反映하야 主로米穀自治的管理案에集中되엇다 卽政府는過剩米의統制組合의 設立으로서 그統制를期待하는모양인데 過剩米에對하야季節的過不及이잇슬뿐으로大體觀察할때는大體過不足이업다고밋고留하서米價의調制에는現行米穀統制法만으로充分하나구더더이의米穀統制組合設立은

다또 一例外地에만 組合을 設置하고 日本內地에 設置치안는것은 所謂差別的待遇를設함과가튼일임으로 이것을取치안는다그點을諒解하기를바란다고하뒤 委員의選擧가잇고 午後五時半散會하엿다

日本內地에關하야 所用이업다同組合 設立은朝鮮臺灣만에局限한것이다

이에對하야 農林當局은 統制組合이過剩米만의統制를行하는것이 아니다이것을設立함으로써生産者의利益을조곰도害케할念慮가 업슬뿐아니라 日本內地米에關하야는 季節的으로過剩米를統制할것임으로 이런때에는 同組合의機能을 充分히發揮하야 價格의動搖를 防止함이可能하

昨年農作物被害

面積八十八萬九千餘町步 金額二千二百七十萬餘圓

水害、虫害、雹雪害

【農林局調査】昨年中水稻、豆類、麥類、粟、玉蜀黍、稗、棉花、馬鈴薯、果樹、桑等의 朝鮮內農作物에對하야 水害 病虫害 雹雪害等의被害總面積은 八十八萬九千餘町步 그金額은二千二百七十[illegible]에達하엿다 그中에水害는南朝鮮의六道를비롯하야 平南北、黃海、咸南北、京畿、慶北、[illegible] 病虫害에잇서는 京畿、慶北、咸南北、江原、平北等이다 또 雹害는 主로慶北이엇다고 한다 (單位千圓 面積은町)

▲水害 [illegible]
▲雹雪害 一、八七五 四〇
▲病虫害 一六、〇九一 六六六
▲合計 八八九、[illegible]

取引所賠償 最後的運動

◇…朝鮮側도參加

米穀統制法의 實施에依하야米穀取引所가 바로致命的打擊에對하야 全國取引所聯合會에서는最善國家賠償問題로 奮起하고 政府當局에運動中인데 米穀統制法의補強工作인 米穀自治管理案도決定되야 今通常議會에 提出키로되엿슴으로 다시全國的으로 氣勢를올리기로되야 二月一日午前十時부터 東京 日本橋俱樂部에서 全國取引所及取引員組合聯合의時價大會를 열게되고 朝鮮側에도 參加할意를勸誘하엿슴으로 朝取에서 小杉理事長代理 또는 秋山常務理事、取引員組合에서新田委員長 地方取引所에서도 代表者가 參加키로되엿다고한다

貿易業者覺醒

大阪商議促進

【大阪電話聯合】大阪商工會議所에서는 二十八日午後一時緊急幹部會를열고 자바화이나汽船會社의進出에對抗하라고 航路擁護問題를協議한結果 不遠間所貿易部와協力하야 在阪有力貿易業者와 對策을凝議키로되엿다

一時現象

當分現狀維持 藤山日糖社長談

最近製菓業者間에 糖價値下運動이 잇는바 이것은分蜜糖이比較的高價인때문이 아닌가한다 이것은中間端境期의一時的現象으로 永續性의것이아니다 蔗糖의昨年收穫은 매우적엇슴으로中間端境的現象이 생겻스나

東京砂糖價暴騰

市場混亂의狀態로

【東京電話聯合】東京砂糖市場에서는 定期側의買煽으로品不足으로 大暴騰하고 市場은全然混亂狀態에빠저二節의立會不能으로되엿스나 [illegible]

米日爲替少高

【京城二十八日砂聯合】二十八日의米日爲替는 [illegible]

▲大阪爲替 [illegible]
▲東京爲替 [illegible]

廿八日米鐵道發送

今年 前年 比較

[illegible]

經濟界消息

▲北鮮製紙公募=朝鮮製紙化學工業會社에서는 總株數四十萬株(資本金二千萬圓)中發起人이 三十五萬株를、引受하야 五萬株를 公募키로된바 申請株數의 單位를 十株以上五百株以下로 限定하고 一株에對하야 五圓의 證據金을 徵收하고 申請期日을 二月四五의兩日로定하엿다고

▲朝鮮農會總會=朝鮮農會에서는 今月三十一日 午前十時부터京城호텔에서 通常總會와 多收穫褒賞授與式을 擧行할터인데 午後六時부터 [illegible]方面을 朝鮮호텔에招待[illegible]

今日財界 (廿九日)

[illegible]

商況 (廿九日)

株式 買氣再發 昂進

前場不變

東京大阪當限納會에當하야 議會의豫算總會가어떠케될것인가 이것의結果如何와 保合細刻이다가 結局昨後止와比하야 [illegible]

後場昂進

[illegible]

當限平穩納會 好感出로少堅

[illegible]

恢復不遠? 悲觀은不要

大株一般取引員辻[illegible]氏 談

[illegible]

議會無事이면 어떠하게될가

[illegible]

市場六感

[illegible]

期米 細刻裡에 保合

前場小弛

[illegible]

後場强保

[illegible]

實物前場取引

[illegible]

東京國債市況

[illegible]

買氣漸次熾烈 市勢結局上放?

[illegible]

强軟兩材交錯 結局難伸難抑

[illegible]

各地正米

京城不振、仁川下放、釜山軟化、大邱軟弱、群山强硬、木浦釘着、南浦底堅 [illegible]

堂島前場情報

[illegible]

朝取期米取組高

[illegible]

連續受賞 諸賢의愛顧하신德 感謝 以後一層誠心努力 誓約 賣買高多額二等賞受領 劉康益夏商店 仁川

金·白·銀·金 賣買 大陸商會 京城府茶屋町壹〇番地(小廣橋側) 電話光化門五二八番 振替京城壹五四番 地方注文 代金引換販賣 要送料先金

金·白·銀·金 德 力 京城德力 京城府明治町 電話本局[illegible] 振替京城[illegible] 地方注文 代金引換販賣 要送料先金

金融 (廿九日)

海外經濟、朝鮮銀行券、日本銀行券、東京金利、京城手形交換高、大阪金利、對外爲替、金貨入價

[illegible]

米穀 (廿九日)

京城正米、仁川正米、大阪正米標準價、京城雜穀、仁川大豆

[illegible]

商品 (廿八日)

京城綿糸布市勢、京城綿布、日本麥粉市勢、치카고期麥、豆油相價、大連特産市勢、滿洲商況、豆粕相價

[illegible]

株式 (廿九日)

朝取短期、大阪長期、大阪短期、東京短期取組、東京短期、東京現株、朝取短期賣買高、算定代引日步

[illegible]

期米 (廿九日)

朝取期米、東京期米、大阪期米取組、大阪期米、朝鮮內各地期米、朝取賣買高、取組高

[illegible]

商品 (廿九日)

大阪棉糸、大阪棉花、各地人絹、橫濱生絲、大阪砂糖、海外砂糖、大阪市中在米高、日本各地期米

[illegible]